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3 **5/6**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kdta@chollian.net
홈페이지: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둡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아도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물리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귄다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바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93호 2003년 5/6월호

창간 1992년 5월 25일/

피넨 한국보육교사회/피넨이 이용경/

봄은이 황미혜, 김희정/피넨날 2003년 5월 15일

2 권두언	보육발전을 위한 우리사회의 과제	지은희
3 보육정책	<알아봅시다> 보육시설 인증제	편집부
25 기획시리즈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 (2)	심선경
32 현장교육 1	형님들과 함께	이은희
34 현장교육 2	평화의 봄시장	김혜은
41 평화를 꿈꾸는 보육	아이들과 함께 하는 평화교육	서정은
53 특별인터뷰	여성부 김예영 여성정책실장	편집부
57 현장소식 1	12주기 열 번째 추모제를 지내며	박은아
58 현장소식 2	신입 회원 교육을 마치며...	최종문
59 현장소식 3	돌봄, 그 철학적 의미에 대해...	강영신
61 새내기인사	선생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윤진숙
63 인물탐방기	위풍당당한 그녀 최선화를 만났습니다.	최현숙
65 좋은 그림책소개	뭐하니?	김영수
66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세쌍둥이어린이집 아이들의 이야기	이경미
67 아이들과의 하루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서주희
69 육아일기	태중일기(1) - 나이 마흔에 나를 만나다!!!-	주로미
72 세상읽기	아이들이 무얼 보는가	이선미
74 목소리	내 마음에 찍어놓은 그 곳, 인도	김숙자
78 상담실 Q&A	보육실습이 전공필수로 되어야만 보육교사1급이 인정?	편집부
79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여행지 추천> 열심히 일한 당신 미나라 -	김희경
82 일런		편집부
86 보육계풍향		편집부
89 소식과 소식		편집부
98 편집부에서		편집부

보육발전을 위한 우리사회의 과제

지은희 · 여성부장관

'아이는 누가 봐주나요?', 요즘 결혼한 직장여성들이 가장 먼저 듣는 질문입니다. 아이 돌봐 주는 아주머니를 찾아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리 저리 이사하기,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고 주말에야 아이 보러 가기, 또는 친정 집으로 전격 입주하기, 심지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생이별시키고 어머니 모셔오기 등, '아이 맡기기'로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직장 여성들의 모습들은 아이 가진 직장 여성들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결국은 '아이 맡기기'의 어려움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 그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직장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 출산율 1.17,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참여욕구는 커지고 있는 반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된지 1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저소득층 맞벌이 아이들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던 보육정책의 방향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육은 이제 가정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아이들만의, 그리고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육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권리',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권리'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정 책임'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던, 영국과 일본도 'Child Challenge Project' (1998), '엔젤플랜' (94) 등의 국가차원의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는 참여정부 공약사항입니다. 최근 여성부로의 보육업무이관 결정은 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29%인 국가의 보육재정 부담율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저소득층과 농촌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통합보육, 연장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간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차등보육료 도입,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도입,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육정책이 국가 정책의 주변부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사업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은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봅시다〉 보육시설 인증제

정리 편집부

보육의 질 향상 방안의 하나로 최근 보육시설 인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서울시보육정보센터는 3주년 기념 세미나 주제로 평가인증제를 다루었고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인증제 도입방안과 지표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보육시설 인증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고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인증제란?

인증제란 인증지표를 이용하여 시설 스스로 시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보고, 그 시설의 질적 수준을 지표처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다. 인증여부는 시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과정과 보육 전문가에 의한 점검에 의해 결정된다. 인증제도의 중요한 점은 시설들이 지표내용만큼 스스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기준)가 만들어지면 인증기관은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역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 보육시설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증의 과정

인증과정, 비용, 인증기구, 인증담당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여기서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모델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 인증기구

인증을 담당하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어떤 형태일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통해 운영하는 경우(호주)와 민간전문기구에서 운영하는 경우(미국)가 모두 있다.

○ 인증과정

인증을 위해서는 ①지표를 보고 시설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과 ②전문 평가자가 시설에 직접 나가 운영과 보육활동을 관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③인증위원회 등에서 작성된 보고내용과 시설자체평가를 가지고 인증을 결정하는 심의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인증을 실

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 인증담당자

인증 담당하는 전문평가자의 구성은 대개 전문학자와 현장경험자가 함께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①미국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근무경력, 관련학위소지여부, 관련지식·관찰기술·대인관계에 능한 자 등 다양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며 가정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자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②호주의 경우에는 인증에 통과한 시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평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가능한 자,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매너가 있는 자, 사회정의와 동등한 기회에 대한 전문적 지식 수행이 가능한 자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자는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주일까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4) 비용: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증비용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설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3. 인증지표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인증지표(시안)를 개발하고 시범적용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발원의 인증지표를 소개합니다. 이 지표의 문항 수와 내용은 시범적용 후 다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표 구성

총 8개 영역, 89문항(영아용 특수지표 / 별도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규모와 형태에 따른 특수지표가 다양하게 필요하지만(예를 들어 놀이방, 야간보육, 장애아보육 등) 아직은 인증제 도입이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어린이집 형태(주간, 종일, 40인이상 규모, 영유아 보육시설)를 기준으로 지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려면 현장의 의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관리 - 6문항

일상적 양육과 상호작용 - 15문항 (영아용 특수지표 / 별도 5문항)

보육과정 운영 - 20문항 (영아용 특수지표 / 별도 4문항)

보육시설환경 - 8문항 (영아용 특수지표 / 별도 1문항)

건강과 영양 - 14문항 (영아용 특수지표 / 별도 2문항)

안전 - 10문항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근무환경 - 10문항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 6문항

○ 지표 내용

1. 운영관리

1. 교사회(의)가 정기적으로 있으며,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 () 정기적인 교사회(의)가 월 2회 이상 있으며, 의사결정이 교사들과 협의하에 이루어진다.
 - () 정기적인 교사회(의)가 월 2회 미만이거나, 의사결정이 시설장 주도로 이루어진다.
 - () 정기적인 교사회(의)가 없다.
2. 재정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 () 예·결산서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이 명확하다.
(예: 예·결산서 관·항·목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책임소재 있으며, 수입·지출의 내역과 통장이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고, 지출은 주로 계좌이체나 카드로 이루어짐)
 - () 예·결산서가 형식적이거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이 비교적 불명확하다.
 - () 예·결산서가 없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이 불명확하다.
3. 새로운 인력(교사, 직원, 자원봉사자, 실습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절차가 있다.
 - () 새로운 인력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절차가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예: 담당업무, 담당 영유아의 상태, 긴급상황시 대처절차, 공유업무 파악 등)
 - () 새로운 인력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나, 체계적이지 않다.
 - () 새로운 인력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없다.
4. 등록 전에 방문하는 부모에게 시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준다.
 - () 체계적인 부모용 지침서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제시해준다.
 - () 부모용 지침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설명 없이 지침서만 준다.
(예: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의 경력사항 등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음)
 - () 부모용 지침서가 없고, 시설에 대해 구두 설명만 한다.
5. 신입원아의 적응을 위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시행된다.
 - () 신입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최소 1주일 이상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예: 보육교사의 집중 배려, 보호자와 함께 있기 등)
 - () 신입원아의 적응을 위한 배려가 불충분하거나 기간이 짧다.
 - () 신입원아의 적응을 위한 배려가 없다.
6. 원아에 대한 서류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 () 모든 원아에 대한 서류(예: 생활기록부, 건강관리서류, 영유아 관찰기록 등)가 잘 구비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 원아에 대한 서류가 부분적으로 구비되어 있거나,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 () 원아에 대한 서류가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2. 일상적 양육과 상호작용

1. 등원 및 귀가시, 교사는 영유아에게 따뜻하게 대한다.

- () 교사는 대부분의 영유아에게 개인적 관심을 보이고 따뜻하게 대한다.
(예: 영유아의 건강 상태 시진, 부모와의 짧은 대화 등이 포함됨)
- () 교사가 개인적 관심을 보이고, 따뜻하게 대하는 영유아가 절반 정도 된다.
- () 교사가 대부분의 영유아에게 개인적 관심을 보이지 못한다.
(예: 교사가 하루 일과 준비관계로 바빠서 영유아를 맞이하지 못하거나 귀가활동이 산만함)

2. 식사와 간식시간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 () 교사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을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예: 교사가 개별 영유아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습기회로 활용함)
- () 교사가 식습관 지도를 강조하고, 항상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지는 못한다.
- () 교사가 집단 배식 및 급식에만 일중한다.

3.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수용하고,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 () 영유아의 개별적인 낮잠 습관(예: 개별 침구, 인형 등)을 수용하고, 잠들 수 있는 분위기(예: 빛 차단, 음악 등)를 만들어준다.
- () 개별적인 낮잠 습관과 잠 잘 수 있는 분위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배려하지 못한다.
- () 두 가지 모두 배려하지 못한다.

4. 교사는 낮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을 마련해준다.

- () 낮잠에서 일찍 깨거나 잠들지 못한 영유아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조용한 활동을 안내한다.
- () 낮잠을 못 이루는 영유아를 위한 공간은 마련해주나, 조용한 활동을 안내하지는 못한다.
- () 낮잠을 못 이루는 영유아를 위한 공간이나 활동의 배려가 없다.

5. 걸음마기 유아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교사는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 () 걸음마기 유아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교사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개별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로 이용한다. (예: 손씻기, 휴지 사용, 옷 입기 등의 자조기술 격려)

- () 교사는 화장실로 유아를 안내하지만 상호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 () 교사는 걸음마기 유아를 화장실에 동반하지 못한다.

6. 교사는 유아의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연령에 맞게 지도한다.

- () 교사는 유아가 화장실 사용 후, 실외놀이 후, 식사 전 손을 청결히 하도록 하며, 식사 후 이 닦기, 날씨에 맞게 옷 입기 등을 연령에 맞게 배우도록 격려한다.
- ()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강조하나, 유아 스스로 배우도록 격려하지 못한다.
- ()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일관되게 지도하지 못한다.

7. 교사는 영유아에게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 () 교사는 대부분의 경우 개별 영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말한다.
- () 교사는 가끔 영유아에 대해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 () 교사는 영유아의 개인적인 말을 무시하거나 주로 일과진행에 관해 이야기한다.

8. 교사는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 () 교사는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해 언어 또는 신체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한다.
(예: 유아의 질문이나 요구를 다시 분명하게 확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 요구에 따라 응함)
- () 교사는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반응하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다.
- () 교사는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9. 교사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지도한다.

- () 교사는 비평과 위협, 부정적 방법(예: 소리치기, 벌 세우기, 체벌 등)으로 행동을 지도하지 않으며, 칭찬과 격려, 이유 설명,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부분 지도한다.
- () 교사는 행동 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나, 가끔 부정적인 방법도 사용한다.
- () 교사는 행동 지도에 부정적인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10. 교사는 영유아와 긍정적인 신체적 상호작용을 한다.

- () 교사는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신체적 상호작용을 자주 한다.
(예: 미소짓기, 등 쓰다듬기, 안아주기 등)
- () 교사는 긍정적인 신체적 상호작용을 가끔 한다.
- () 교사는 긍정적인 신체적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11. 보육실 내 또래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있다.

- () 또래간에 협동, 나누기, 긍정적 정서표현 등의 상호작용이 빈번하다.
- () 또래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끔 있다.
- () 또래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12. 교사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받아주고 보살피준다.

- () 영유아가 울거나 화내고 불안해 할 때, 교사는 대체로 이를 받아주고 보살피준다.
(예: 감정을 인정하고 위로하기, 신체적으로 안아주기 등)
- () 영유아가 울거나 화내고 불안해 할 때, 교사가 받아주지 못할 때가 가끔 있다.
- () 영유아가 울거나 불안한 감정을 보일 때, 교사가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3. 교사는 영유아간의 다툼이나 문제 해결에 적절히 개입한다.

- () 교사는 영유아간의 다툼이나 문제에 대해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히 개입한다.
- () 영유아간의 다툼이나 문제를 영유아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하기보다 대부분 교사가 대신 해결한다.
- () 영유아간의 다툼이나 문제에 교사 개입이 거의 없다.

14. 교사는 영유아의 자유놀이에 참여하고 즐긴다.

-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대부분 이를 즐긴다.
(단, 교사가 영유아 놀이에 항상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한 교사의 참여가 장려됨)
- () 교사는 영유아 놀이에 참여하지만 즐기지 않을 때도 있다.
- () 교사는 영유아 놀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15. 교사는 영유아의 성이나 배경에 관계 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 () 교사는 영유아의 성,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 발달적 지체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영유아를 평등하게 대한다.
- () 교사는 편견이 담긴 말과 행동을 가끔 한다.
(예: 특별히 선호하는 영유아의 옷에 대해, 또는 "남자는 우는게 아니야" 등의 언급)
- () 교사는 편견이 담긴 말과 행동을 자주 한다.

〈영아용 특수지표〉

1. 교사는 영아의 신체적, 양육적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 교사가 영아의 젖은 기저귀, 배고픔, 피로 등을 빨리 알아차리고, 이에 적절히 반응한다.

- () 영아의 개별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한 반응을 못하는 때가 있다.
- () 영아의 개별 욕구보다 교사의 일정에 따라 양육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
- () 해당사항 없음

2. 교사는 영아의 씻기, 옷 입기 등 기초적인 양육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이루도록 한다.

- () 교사는 식사 전후 영아의 손을 청결히 해주고, 활동과 날씨에 맞게 옷을 입도록 해준다.
- () 교사가 영아의 씻기, 옷 입기 등을 돌보지 못할 경우가 가끔 있다.
- () 교사가 영아의 씻기, 옷 입기 등을 거의 돌보지 못한다.
- () 해당사항 없음

3. 교사는 영아의 수유 시간에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 () 교사는 영아와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수유를 한다.
(예: 팔에 안거나 우유병을 잡아줌,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함)
- () 수유 시간에 일부 영아와는 상호작용을 한다.
- () 수유 시간에 교사와 영아간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예: 각 영아에게 우유병을 주고 먹게 함)
- () 해당사항 없음

4. 교사는 영아의 기저귀를 갈 때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 () 교사는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예: 신체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이야기를 나눔)
- () 교사는 기저귀를 갈면서 영아와 상호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 () 교사는 상호작용 없이 기저귀만 갈아준다.
- () 해당사항 없음

5. 교사는 영아의 개별적인 발달에 맞추어 배변훈련을 실시한다.

- () 영아의 배변 실수를 수용하고, 개별적인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배변을 지도한다.
(예: 부모와 협의해 배변 훈련)
- () 영아의 배변 실수를 수용하나, 배변훈련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배려하지 못한다.
- () 영아의 배변 실수에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배변훈련을 적절히 실시하지 못한다.
- () 해당사항 없음

3. 보육과정 운영

1. 보육계획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 () 연간, 월간 또는 주간 보육계획이 계열, 영유아의 연령, 흥미와 개인차를 고려하여 제

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 보육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 보육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

2. 일상생활 관련 활동과 지역사회 시설 이용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일상생활 관련 활동(예: 산책하기, 가게 가기)과 지역사회 시설(예: 공원, 박물관, 도서관, 소방서 등)을 이용한 활동이 일년에 6회 이상 계획되어 있다.

() 이상의 활동이 일년에 3~5회 계획되어 있다.

() 이상의 활동이 일년에 2회 이하이다.

3. 하루일과의 보육활동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하고 있다.

() 대집단 활동과 소집단 활동, 정적활동(예: 이야기 나누기, 그림 그리기, 동화듣기)과 동적활동(예: 신체표현, 게임, 실외놀이), 교사 주도적 활동과 아동 주도적 활동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다.

() 위의 활동들이 모두 있으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 대집단 활동, 교사 주도적 활동이 대부분이며, 정적활동 또는 동적활동으로만 주로 계획되어 있다.

4. 일과에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충분히 계획하고 있다.

() 오전과 오후에 자유선택활동이 모두 계획되어 있으며, 총 3시간 이상 계획되어 있다.

() 자유선택활동이 오전에만 있으며 총 1~2시간 계획되어 있다.

() 자유선택활동이 총 1시간 미만으로 계획되어 있다.

5. 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 일과를 교과목 형태(예: 체육시간, 미술시간)로 구분하지 않으며,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 교과목으로 나누지는 않았으나, 통합성이 적게 계획되어 있다.

() 교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6. 실외 교육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 실외활동이 매일 1시간 이상 계획되어 있고, 날씨가 안 좋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

() 실외활동이 거의 매일 계획되어 있으나, 날씨가 안 좋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이 없다.

() 실외활동이 주 2회 이하로 계획되어 있다.

7. 보육과정 평가 결과를 보육과정의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 정기적으로 보육과정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결과가 운영에 실제로 반영된다.

() 보육과정 평가가 이루어지나 보육과정 개선에 활용되지 않는다.

() 보육과정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8. 대·소근육 활동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 대·소근육 활동 자료(예: 다양한 크기의 공, 매트, 자전거/영아의 경우 봉봉카, 오름틀과 미끄럼틀, 밀기 장난감/끼우기, 퍼즐 등)가 실내외에 다양하며, 영유아 수에 맞게 충분히 있다.

() 대·소근육 활동 자료가 다양하지 않으며, 영유아 수에 충분하지 않다.

() 대·소근육 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9. 언어활동을 위한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 언어활동 자료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네 영역 별로 다양하게 있다.

(예: 카세트 테이프/손 인형, 막대동화/종이, 굵은 연필, 색연필/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그림책, 형견책)

() 세 영역에 관련된 언어활동 자료가 있다.

() 언어활동 자료가 한 두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예: 책/쓰기 자료)

10. 탐구활동을 위한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 수·조작·과학활동을 위한 자료가 내용 및 종류에 있어 다양하다.

(예: 수세기 식물 자료/작은 블록류/자연물 등)

() 수·조작·과학활동을 위한 자료의 종류가 적으며 평면자료로 제한되어 있다.

() 수·조작·과학활동을 위한 자료가 거의 없다.

11. 창의적 표현활동을 위한 자료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 창의적 표현활동(예: 음률, 미술, 동작, 극놀이)을 위한 자료가 영유아 수에 맞게 충분히 있고,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 창의적 표현활동을 위한 자료가 한 두 영역에 편중되어 있고(예: 미술 또는 극놀이), 수가 충분하지 않다.

() 창의적 표현활동을 위한 자료가 거의 없다.

12. 역할놀이 및 쌓기 놀이를 위한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 역할 및 쌓기 놀이감의 내용이 다양하고 영유아 수에 맞게 충분하다.

(예: 옷, 그릇, 음식모형/종이블록, 유니트블록, 속 빈 블록 등)

() 역할 및 쌓기 놀이감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수가 충분하지 않다.

() 역할 및 쌓기 놀이감이 거의 없다.

13. 대·소근육 활동을 한다.

- () 실외나 실내 놀이공간에서 대·소근육 활동을 매일 한다.
- () 이러한 활동의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 () 이러한 활동의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14. 언어활동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 () 듣기, 말하기에 대한 기회가 일과 속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읽기, 쓰기(영아의 경우, 꺾적거리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활동을 자주 한다.
- () 네 영역(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 관련된 활동이 제공되나, 이 중 한 두 영역에 치우쳐있다.
- () 학습지를 이용하여 읽기, 쓰기 연습을 주로 한다.

15. 친구와 나누기, 협동하기, 도와주기 등 사회성을 촉진하는 활동을 한다.

- () 사회성 촉진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활용한다.
(예: 놀이감 나누기/ 공동 작업, 게임에서 협동하기/ 간식줍기 등)
- () 영유아에게 사회성 활동 기회를 제공하지만, 교사주도로 활동(예: 이야기 나누기)이 이루어진다.
- () 사회성 활동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16. 예절과 질서 등의 기본 생활 습관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

- () 예절과 질서 등의 기본 생활 습관에 관련된 활동을 보육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예: 점심식사시 질서지키기, 견학시 차례지키기, 공공질서 지키기 등)
- () 예절과 질서 등의 기본 생활 습관에 관련된 활동을 가끔 한다.
- () 기본 생활 습관을 교육내용으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17. 탐구력, 사고력을 촉진하는 활동이나 경험을 제공한다.

- () 다양한 실물 자료나 자연을 이용한 수·과학 활동이 자주 제공된다.
(예: 모양·색·크기·길이 분류, 일대일대응, 수세기/ 동·식물관찰, 실험 등)
- () 수·과학 활동이 제공되나, 실물 자료는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 () 수·과학 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주로 평면자료를 이용한다. (예: 수 카드)

18. 창의성 발달을 촉진하는 음률활동을 한다.

- () 다양한 동작 및 음악 자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표현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 리듬악기로 다양한 소리내기, 음악듣기, 스킵나 리본테이프 표현하기 등)
- () 교사를 따라하는 표현 활동이 많다. (예: 노래 따라하기, 율동 따라하기 등)
- () 음률활동의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19. 다양한 미술활동의 경험을 제공한다.

- ()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미술활동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 그리기, 만들기, 콜라주, 입체 꾸미기 등/ 영아의 경우, 꺾적거리기, 간단한 가위질, 굵은 붓으로 그리기, 신문지 찢기 등)
- ()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지만 창의적인 활동보다는 모방활동이 많다.
(예: 교사가 만든 견본작품 따라하기)
- () 한 두 가지의 제한된 활동을 따라 하거나, 자료 사용이 제한적이다.
(예: 색종이 한 장 주어 접기 활동하기, 그리기, 폐품 하나로 만들기)

20. 다양한 역할놀이 및 구성 놀이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 () 다양한 종류의 역할놀이 및 쌓기 놀이를 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된다.
(예: 상차리기, 가족놀이, 병원놀이, 음식점놀이/ 블록쌓기, 동물원 꾸미기 등)
- () 역할 및 구성 놀이가 제공되나, 놀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놀이공간을 일부 제한한다.
- () 역할 및 구성 놀이의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영아용 특수지표〉

1. 일과계획이 영아에게 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 () 일상적 양육과 놀이활동, 정적활동(예: 감각놀이, 동화듣기)과 동적활동(예: 몸 움직이기, 실외놀이), 개별 활동과 소집단 활동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다.
- () 위의 활동들이 모두 있으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계획되어 있다.
- () 개별 활동이 거의 없고, 주로 일상적 양육 또는 놀이활동으로만 계획되어 있다.
- () 해당사항 없음

2. 영아의 감각활동과 조작을 위한 놀이감이 있다.

- () 눈과 손의 협응을 위한 조작 및 감각 놀이감이 영아 수에 맞게 충분히 있다.
(예: 감각놀이대, 촉감판, 밀가루 반죽, 누르면 튀어나오는 까장 놀이감, 조각이 큰 그림 맞추기 등)
- () 조작 및 감각 놀이감이 영아 수에 충분하지 않다.
- () 조작 및 감각 놀이감이 거의 없다.
- () 해당사항 없음

3. 긍정적인 자아 인식 능력의 발달을 돕는 놀이감이 있다.

- () 영아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신거울과 다양한 종류의 인형, 신발과 가방, 소품 등의 놀이감이 있다.

- () 전신거울은 있으나, 옷 종류와 소품, 소품 높이감이 다양하지 못하다.
 - () 전신거울이 없거나, 관련 높이감이 두 가지 이하이다.
 - () 해당사항 없음
4. 영아들이 좋아하는 놀이감은 동일한 것으로 여러 개 준비한다.
- () 영아들이 좋아하는 놀이감은 똑같은 것으로 여러 개 있다.
 - () 같은 놀이감이 여러 개 있기는 하나, 색깔이나 크기가 달라서 동일하지 못하다.
 - () 같은 놀이감이 거의 없다.
 - () 해당사항 없음
4. 보육시설환경
1. 모든 보육실에 난방시설과 냉방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고 모두 잘 작동된다.
- () 냉·난방 시설이 모두 되어 있고 잘 작동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 () 위의 시설이 되어 있으나 잘 작동하지 않는다.
 - () 위의 시설이 잘 안되어 있다.
2. 모든 보육실은 채광이 잘 되고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다.
- () 모든 보육실에 자연 채광이 충분하고, 조명시설이 적절하며 제대로 작동된다.
 - () 일부 보육실에 채광이 충분하지 않거나, 조명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 대부분의 보육실에 채광이 충분하지 않고, 조명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3. 보육실의 공간이 놀이 특성에 따라 잘 배치되어 있다.
- () 활동성의 정도와 소음, 물 사용을 고려하여 실내공간이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유아의 놀이가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 () 활동성과 물 사용을 고려하여 흥미영역을 배치하고 있으나, 한 두 영역의 조정이 필요하다.
 - ()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놀이가 서로 방해된다.
4. 보육실의 교재교구는 낮은 개방식 장에 넣어 영유아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 대부분의 교재교구는 낮은 개방식 장에 보관되어 있어 영유아가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 () 교재교구는 일부만 개방식 장에 넣어 영유아가 쉽게 사용할 수 없다.
 - () 대부분의 교재교구는 폐쇄식 장에 보관되어 있고, 교사가 꺼내준다.
5. 실내에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다.

- () 영유아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고, 부분 카펫이나 깔개, 쿠션 등이 구비되어 있다.
 - () 영유아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은 있지만, 부분 카펫, 쿠션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 영유아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다.
6. 영유아 개인별로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 () 영유아가 만든 작품이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 공간이나, 사물함, 바구니 등의 설비가 개인별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 () 개인별 소지품 보관 설비가 있으나, 영유아 수에 충분하지 않다.
 - () 개인별 소지품 보관 설비가 없다.
7. 비품과 교육자료의 보관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 ()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교육자료를 보관할 창고 또는 자료실이 있다.
 - () 창고 또는 자료실이 있으나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 (예: 교재장을 교실 또는 복도에 설치함)
 - () 보관할 창고나 자료실이 따로 없다.
8. 영유아를 위한 실외 공간이 있다.
- () 영유아를 위한 실외 공간이 있다.
(영유아 40인 이상은 실외놀이터 의무 설치, 영유아 1인당 2.5m²(0.7평) 이상)
 - () 영유아를 위한 실외 공간이 없으나, 실외 공간을 대체할 공간이 있다.
(예: 실내 유희실, 옥상놀이터, 인근 놀이터 등)
 - () 영유아를 위한 실외 공간이 없고 대체할 공간도 없다.
- 〈영아용 특수지표〉
1. 기저귀 갈기, 수유 공간 등 일상 양육을 위한 공간과 설비가 있다
- () 하루 중 언제든지 기저귀 갈기, 수유, 손담그기, 목욕 등 일상 양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설비가 보육실 내에 있다.
 - () 기저귀 갈기 영역과 수유 공간 등이 있으나,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 () 위의 공간 및 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 해당사항 없음

5. 건강과 영양

1. 보육실을 포함하여 실내 시설이 청결하다.
 - () 보육실과 실내시설(현관, 복도, 공유공간 등)을 매일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 전반적으로 청결해 보이지만, 보육실이나 현관, 복도, 공유공간 가운데 청결 상태가 미흡한 곳이 있다.
 - () 보육실과 현관, 복도, 공유공간 가운데 두 곳 이상이 청결하지 못하다.
2. 보육실은 환기가 잘 되고, 습도가 적절히 유지된다.
 - () 보육실은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하고 있으며(특히 실내 놀이시간 후, 식사시간 후, 낮잠 후 반드시 환기),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가습기 또는 제습기(에어콘) 등을 사용한다.
 - () 창문이 작거나 자주 열지 않아 환기가 미흡하고, 습도조절이 잘 안된다.
 - () 보육실의 습도조절을 거의 하지 않고, 환기가 안되어 냄새가 난다.
3. 화장실과 세면장이 청결하다.
 - () 화장실과 세면장은 청결하며, 항상 깨끗하고, 마른 수건(또는 일회용 수건)과 비누가 비치되어 있다.
 - ()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및 수건과 비누의 비치상태 등이 가끔 미흡할 때가 있다.
 - () 화장실과 세면장은 냄새가 나거나 불결하며, 바닥이 젖어있거나, 비누가 없고 수건이 젖어있다.
4. 조리실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 조리실은 창문과 배기관을 이용하는 등 환기가 잘 되고 있으며, 조리대와 조리도구 등 급식설비가 청결하고, 식기류(예: 컵, 수저, 식판, 배식용 접시)는 깨끗하고 건조하게 보관되고 있다.
 - () 조리실 환기상태, 급식설비와 식기류의 청결 및 건조상태 가운데 한 가지가 미흡하다.
 - () 조리실의 환기, 급식설비와 식기류의 위생적 관리에서 두 가지 이상이 미흡하다.
5. 조리실의 음식은 위생적으로 준비, 보관된다.
 - () 전반적으로 음식의 준비 과정이 위생적이며, 유효기간 이내의 식품만이 냉장고에 청결하게 보관되고 있다.
 - () 음식 준비 과정과 보관 상태, 냉장고의 식품 보관 상태에서 한 부문이 미흡한 수준이다.
 - ()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음식준비 과정이 비위생적이며, 냉장고의 식품 보관 상태가 청결하지 못하다.

6. 마실 물과 물컵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 마실 물(예: 끓인 물, 생수)이 잘 준비되어 있고 물컵은 청결하고 건조하게 관리한다. (또는 개인용 컵 사용)
 - () 물컵의 청결 관리가 미흡하거나, 마실 물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때가 있다.
 - () 마실 물의 상태가 미흡하거나, 영유아들이 같은 물컵을 사용하는 등 관리상태가 청결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7. 교사와 영유아는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손을 씻는다.
 - () 교사와 영유아는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배변지도 후, 음식을 다루기 전 (영아의 경우, 수유 전후), 실외활동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 () 교사와 영유아는 위의 활동 후 대체로 손을 씻으나, 가끔 못 씻는 경우도 있다.
 - () 교사와 영유아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할 때 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8. 영유아는 개별 침구를 사용하며, 침구는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 () 영유아들은 개별 침구(최소한 이불의 경우)를 사용하고 있으며, 침구를 자주 일광소독하고 세탁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 개별 침구가 사용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광소독 횟수나 청결상태가 미흡하다.
 - () 공동 침구가 사용되고, 일광소독을 자주 하지 않으며, 청결상태도 미흡하다.
9. 영유아용 놀이감을 자주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 놀이감은 주로 세척이 용이한 재질로 만들어지고, 더러워지기 쉬운 놀이감(예: 인형, 소꿉놀이 그릇, 음식 모형, 작은 블록이나 조작 놀이감)은 년 4회 이상 세척한다. 영아가 입에 넣기 쉬운 놀이감은 매일 세척한다.
 - () 놀이감은 세척이 용이하나, 더러워지기 쉬운 놀이감은 년 2회 정도 세척한다. 영아가 입에 넣기 쉬운 놀이감은 2~3일에 한번씩 세척한다.
 - () 세척하기 어려운 놀이감이 많고, 더러워지기 쉬운 놀이감의 세척 횟수가 년 2회 미만이다. 영아가 입에 넣는 놀이감을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세척한다.
10.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 ()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예: 질병 및 전염병에 대한 정보 게시, 예방접종의 홍보, 질병에 걸린 영유아를 위한 조치, 영유아의 건강 검진)
 - () 예방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교사가 실천하기 어렵다.
 - ()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11. 몸이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게 취할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고, 이를 시행한다.

()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시행한다. (예: 상황에 따라 격리 보호, 부모에게 연락, 귀가, 출석 제한, 병원 후송, 부모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만 투약을 하는 등)

()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규정이 있으나, 그 시행이 일관적이지 못하다.

()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매우 불분명하다.

12. 월간 및 주간 급·간식 계획(영아반의 이유식 포함)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 급·간식 계획이 모두 마련되어 시행되고, 그 내용을 부모에게 알린다.

() 급·간식 계획이 모두 마련되어 있으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

() 급·간식 계획이 없다.

13. 식사(영아반의 이유식 포함)의 내용은 영양과 조리형태에서 영유아에게 적절하다.

() 성장기 영유아의 영양을 고려하여 과일과 채소,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품이 균형을 이룬 식단을 다양한 형태로 조리하여 식사가 제공된다.

() 식품의 영양적 균형, 조리형태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다.

() 식품의 영양적 균형, 조리형태 면에서 미흡할 때가 자주 있다.

14.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간식이 적절하게 제공된다.

() 간식은 다양하게 제공되어 식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1주일에 3회 이상 제철식품(예: 과일)이 제공된다.

() 영유아의 간식에 인스턴트 식품(예: 과자류)이 가끔 포함되고, 제철식품이 각각 주 2회 정도 제공된다.

() 간식이 다양하지 못하고, 제철식품이 주 2회 미만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인스턴트 식품이 자주 제공된다.

〈영아용 특수지표〉

1. 기저귀 갈기 영역에 필요 물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사용한 기저귀는 청결하게 처리한다.

() 기저귀 갈기 영역에는 물수건, 기저귀, 아기 요 등의 필요 물품이 항상 구비되어 있고, 사용된 기저귀는 즉시 청결하게 처리한다.

() 필요 물품이 부분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된 기저귀가 바로 청결히 처리되지 못할 때가 있다.

() 기저귀 갈기 영역의 필요 물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기저귀 처리가 청결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

() 해당사항 없음

2. 수유 영아를 위한 우유와 우유병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한다.

() 수유 영아를 위한 우유(분유 제외)는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며, 우유병을 매일 소독하여 청결하게 유지한다.

() 우유를 냉장고에 보관하나 우유병의 소독, 관리가 부분적으로 미흡할 때가 있다.

() 우유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을 때가 있거나 우유병의 소독 관리가 미흡하다.

() 해당사항 없음

6. 안전

1. 실내시설(예: 바닥, 창문, 출입문, 계단 등)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 실내 바닥은 미끄럽지 않으며, 출입문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되고(예: 계단에 안전문 설치), 창문은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부드럽게 열리고 끼이는 일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

() 실내 바닥, 창문과 출입문의 안전장치, 창문, 계단의 미끄럼 방지 처리 가운데 수리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 실내 바닥, 창문, 출입문, 계단의 미끄럼 방지 등에서 두 가지 이상이 미흡한 수준으로 수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2. 실외시설, 설비는 안전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다.

() 실외시설, 설비는 규정상의 안전지침을 잘 지키고 있으며, 정기점검을 통해 날카로운 면이나 돌출부위, 위험물이 없고 견고하며 수리할 부분이 없다.

() 실외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안전 점검이 미흡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더 개선할 부분이 약간 있다.

() 실외 시설, 설비 가운데 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다.

3. 시설에서 사용하는 난방기(난방용구), 화기와 조리용구 등은 안전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다.

() 난방기, 화기와 조리용구는 영유아의 활동공간과 격리되어 있고, 안전장치(예: 덮개 상자 등)가 되어 있다.

() 난방기, 화기와 조리용구가 영유아의 활동공간과 격리되어 있으나, 영유아에게 노출될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 난방기, 화기와 조리용구가 영유아에게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다.

4. 보육교사는 실내환경의 안전 및 파손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예방한다.

() 실내 설비와 놀이감에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거친 표면, 부딪힐 위험 요소, 위험한 놀이감(예: 페인트색이 묻어나는 것, 독성 냄새가 나는 것 등), 삼키기 쉬운 조각(영아반

의 경우, 작은 놀이 구슬 등) 등이 없으며, 실내 설비 및 놀이감의 안전과 파손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 실내 설비와 놀이감에는 위험요소가 없으나, 이를 매일 점검하지는 못한다.

() 실내 설비와 놀이감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거친 표면 등의 위험 요소가 가끔 있다.

5.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약품이나 교사용 가위, 세척제 등의 위험한 물건은 영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전기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덮여있다.

()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나 가끔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으며, 낮은 위치의 전기 콘센트에 안전덮개가 없는 곳이 1~2개 정도 있다.

()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에 닿는 곳에서 자주 발견된다.

6. 영유아들은 항상 성인의 감독 하에 있다.

() 교사는 영유아들이 어디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교실 전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 교사는 교사 주위에 있는 영유아 외의 교실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교사와 함께 있는 영유아에게만 교사의 시선이 주로 집중되고 있다.

7. 영유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실시한다.

()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철저히 실시한다.

(예: 서면으로 명시, 제출된 보호자에게만 영유아를 인계하고, 차량 운행시 교직원인 반드시 탑승하여 보조하며,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함)

()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칙이 있고, 대체로 이에 준하여 실시하나 철저히 지키지는 못한다.

()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칙이 없다.

8. 영유아의 사고에 대해 보육시설이 갖는 책임의 한계를 정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린다.

() 영유아의 사고에 대해 보육시설이 갖는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문서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알리고 있다.

() 보육시설의 책임 한계가 정해져 있으나, 이를 정식으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또는 책임의 한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미흡한 상태로 부모에게 알림)

() 영유아의 사고에 대한 책임의 한계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9. 비상시 연락처를 전화기 근처에 게시하며,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시행한다.

() 비상시 연락처(예: 병원, 소방서, 경찰서, 구조대)를 전화기 근처에 게시하며, 대처방안(예: 대피요령, 응급처치 요령, 신고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된다.

() 비상시 연락처가 게시되어 있으나 미흡하여 대처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 비상시 연락처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게시되어 있어도 형식적이어서 대처방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

10. 사고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여 종사자와 영유아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사고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여 교직원과 영유아에게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예: 소방훈련, 응급처치, 위험한 일이나 장소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등)

()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기적이지는 않다.

() 안전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7.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근무환경

1.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 재교육 참여원칙이 수립되어 있고, 시설장과 모든 교사는 1년에 1회 이상 참여한다.

() 재교육 참여원칙이 불명확하거나, 시설장과 모든 교사가 1년에 1회 이상 참여하지는 못한다.

() 재교육 참여원칙이 없고, 1년에 1회 이상 참여하지 못하는 교사(시설장 포함)가 절반 이상이다.

2. 교사 참고용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입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참고자료가 계획에 따라 예산 내에서 구입되고, 교사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예: 보육활동 자료집, 비디오, CD 등)

() 참고자료의 구입이 계획되지 않거나, 교사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

() 참고자료의 구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3.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인사관리에 활용된다.

() 정기적인 보육교사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결과는 향후 인사관리에 반영된다.

(예: 평가지표는 사전에 교사에게 알려주고, 평가시 시설장의 교실 관찰이 있으며, 결과는 연구비 등의 포상에 반영됨)

() 보육교사의 평가가 형식적이거나 결과가 향후 인사관리에 반영되지 않는다.

()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가 없거나 시설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

4. 보육교사 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모든 교사에게 이를 알려준다.

() 복무규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시설장은 교사에게 이를 잘 전달한다.

(예: 봉급, 4대 보험, 퇴직금,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조건, 법정휴가 등)

- () 복무규정의 내용이 부분적이거나, 시설장이 교사에게 규정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
- () 문서화된 복무규정이 없고, 교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5.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자체규정이 있고, 인건비 내역을 교사와 함께 협의한다.
- () 인건비 지급에 대한 자체규정이 수립되어 있고, 인건비 내역은 교사와 함께 협의하여 정한다. (예: 봉급, 상여금, 보험, 퇴직금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시설장과 교사가 정함)
 - () 인건비 지급에 대한 자체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인건비 내역을 시설장이 혼자 정한다.
 - () 시설장이 임의대로 인건비를 지급한다. (예: 인건비 액수가 때에 따라 달라 교사가 인건비 내역을 예측할 수 없음)

6.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잘 지켜진다.
-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법정 근무시간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예: 시간차 근무 등 보육교사의 근무일정을 조절하여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짐)
 - () 근무시간이 법정 근무시간을 약간 초과한다. (예: 하루에 1시간~2시간 미만)
 - () 근무시간이 법정 근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한다. (예: 하루에 2시간 이상)

7. 보육교사의 업무분장이 문서화되어 있고, 공동 업무는 공평하게 분담된다.
- ()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어 있고, 공동 업무(예: 복도청소)는 공평하게 분담된다.
 - () 업무분장이 불분명하거나, 공동 업무가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는다.
 - () 문서화된 업무분장이 없고 공동업무도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는다.

8. 보육교사를 위한 공간과 개인용 가구가 잘 마련되어 있다.
- () 교사회 및 교재 준비를 위한 공간, 교사용 책상, 개인사물함이 마련되어 있다.
 - () 교사회 및 교재 준비를 위한 공간은 없으나, 교사용 책상과 개인사물함이 있다.
 - () 교사용 책상이나 개인사물함이 없다.

9. 종사자(시설장·보육교사·직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서로의 업무에 협조적이다.
- () 종사자간(특히 시설장과 교사간)의 의사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며, 교사간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 () 종사자간의 의사소통이 긴밀하지 않거나, 교사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 () 종사자간의 의사소통이 거의 없고, 교사간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10. 보육교사 중 현 보육시설에서의 경력교사 비율이 높다.
- () 현 보육시설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보육교사 비율이 1/3 이상이다.

- () 현 보육시설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보육교사 비율이 1/3 미만이다.
- () 현 보육시설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보육교사가 없다.

8.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1. 신입원아의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가진다.
- () 신입원아 부모에게 유익한 내용의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갖고, 운영방침 등을 부모와 논의한다.
 - () 부모 오리엔테이션은 있으나, 주로 어린이집의 방침을 전달한다.
 - ()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안내 책자로 대신한다.

2. 보육시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 () 보육시설은 가정과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예: 일일보고서, 게시판, 가정통신문, 전화, 컴퓨터 이메일)
 - () 보육시설은 주로 게시판,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과 의사소통을 하며, 간혹 일일보고서나 전화를 사용한다.
 - () 보육시설은 주로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으로 가정과 의사소통을 하며, 다른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 영유아의 발달 및 지도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해 교사는 정기적으로 부모면담을 한다.
- () 교사는 최소 년 2회 이상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자주 부모와 개별 면담을 마련한다.
 - () 교사는 1년에 1회 정도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다.
 - () 정기적인 부모면담 계획이 없다.

4. 보육실을 부모에게 개방하고, 시설운영에 부모가 참여하도록 한다.
- () 부모가 보육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시설운영에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 지난 1년간 부모의견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적이 있음)
 - () 부모가 보육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나, 시설운영에 부모가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다.
 - () 부모가 보육실을 관찰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에 부모가 참여하지 않는다.

5.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다.
- () 지역사회 관련단체와의 협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관(예: 병원, 소방서, 경찰서, 도서관, 초등학교, 대학 등)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지역사회의 두 세 곳 정도 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특별한 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 지역사회 단체와의 교류가 거의 없다.

6. 특수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전문가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특수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및 가족을 돕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특수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및 가족을 위해서 시설에서는 전문가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 특수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전혀 없다.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22,147개소(2002년 12월말 현재)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시설을 한꺼번에 모두 인증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표개발이 완료되고 인증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시행은 단계적으로 진행 될 수밖에 없다.

인증제도는 시설의 등급이나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안된 질 관리 프로그램이다. 현재의 수준이 부족하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의 고민과 노력이 있다면 인증제도는 오히려 보육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지표 내용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보육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인증제와 지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보육교사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아서 연구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 (2)

심선경 · 명예회원/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지난 4월 9일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두 번째 모임은 두 명의 교사만이 참석하였고, 8시가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 웬지 지난번 모임보다 더 지쳐 보이는 교사들, 한 학기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즈음 교사들간의 해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모임은 지난 모임에 이어 못 다한 현재 보육현장에서 교사로서 하고 있는 역할과 교사 고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진행자) 지난번에 우리가 교사의 역할들을 이야기하다 중단되었는데, 오늘은 각자가 정리해오기로 했지요. 두 분 다 해 오신 것 같은데...

백희) 우선 교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음, 아동만 생각하고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활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희) 내꺼랑 똑같은데, 나도 그런데.

진행자)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얼 이야기하나요?

백희) 지원이라는 것은 물리적, 교육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들춰야 하는 일도 있고 교육적인 지원도 해야 되고.

진행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백희) 지원에 대해서요?

진행자) 네,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배려하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활동이 어린이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백희)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하루 일과가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잖아요. 그러면 7시 반까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아이들과 파놓은 하루 일과가 있거든요. 하루 일과표에 따라서 자유놀이시간, 간식시간, 등원시간 뭐 낮잠시간 점심 먹는 거 뭐 교육활동시간 그 다음에 뭐 귀가 지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

아이하고 호흡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자유놀이, 밥 먹을 때 씻을 때 등 배려를 해 주어야지요. 예를 들면, 자유놀이를 할 때도 너희는 놀아라기 아니라 아이들하고 함께 앉아 가지고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다칠만한 거 있으면 살펴주고 어떤 아이가 못 놀고 있는지 기분이 안 좋은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야 할 것이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거나 아이들이 아플 때는 다른 교사와 상의하여 그 상황에 대처하여야 하고, 간식이나 식사시간에 간식 나눠주고, 자기 간식 다 뱉어놓고 영명진창, 여기선 어질러놓은 상황 수습하라, 잘 못 먹은 아이들 챙겨주라.

아, 특히 간식, 식사시에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아이가 먹기 싫어한다고 그냥 무조건 다음 시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난 그럴 때 되게 황당해요. 그럴 때 교사의 역할은 그 아이가 진짜로 먹기 싫은 이유를 알고서 거기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봐요. 편식인지 배가 아픈지 다른 이유인지, 이유에 따라서 교사들은 달리 대해야겠지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 현실에서는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진행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이를 중심에 놓고 아이들과의 어떤 상호 관계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백외)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못해 주니까 문제지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가능하거든요. 아이들만 돌보는 상황만 된다면요.

여기서 잠깐!

비록 1명의 교사가 한 이야기이지만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 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참석교사가 정리해온 교사의 역할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한 표를 보면, 한 교사는 교사 역할 이외의 업무에 원아맞이가 적혀 있다. 이것은 교사의 역할이 교실 내로만 국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교실 안에서의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

교사 1)

보육교사가 해야 할 일	기본적인 외의 업무
· 기본적으로 보육교사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있는 일이 유아들을 잘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 ·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로 하는 보호상황 교육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	· 원의 급식, 소방관련 업무 화장실 청소관리, 식품관리, 체육교사, 원 입구에서 원아맞이

교사 2)

교사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 비중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하는 일	1. 하루 생활 중 아동을 위한 시간은 10% 2. 아동관련 서류의 정리는 0% 3. 교육을 위한 준비는 0% 4. 청소 잡무 5. 원행정 및 원장님 비서 70% 6. 휴식 0.5% 7. 기타 전화 등 상담 15%

※ 위의 표는 2명의 참석교사가 정리해온 내용을 그대로 실은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본인이 느낀 대로 적은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교사의 역할을 꼭 보면서 한 의문이 드는데,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좀더 세분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사들이 그냥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해야 되는 또 다른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이야기하신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면 하루일과는 하루일과를 짜는 일,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일, 아동을 위한 가정환경에 대한 관심과 상담, 어린이집에 운영을 어떻게 되는지 등 하다보면 더 많지 않을까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사들은 이러한 것들도 나의 역할로 받아들이나요?

백외) 글썽요. 사실은 지금 현재 교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들, 말하자면 물리적 조건이나 교사의 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아빠는 돈을 열심히 벌고 돈버는 일만 열심히 하고 엄마는 아이들을 잘 봐주더니 어떻게 역할이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진행자) 아니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세부적인 일을 해야되는가. 교실에 들어가서 상호작용하는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왜 밥을 못 먹고 왔나, 애네 집은 집이 어렵거나, 엄마가 혼자 키우는 애야. 애는 문제가 있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엄마와의 상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실상 그런 것들이 다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하루의 일과를 보더라도 우리 반 아이들이 이런 특성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의 특히 우리 반은 일찍 오는 아이들이 많아, 낮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등 이런 필요가 있어요.

하루일과 프로그램이나 교육안 작성도 교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교사의 필요에 의해서 부모와의 상담이나 자모회, 지금 엄마와 상담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린이집에서 전통적으로 3월 초에서 4월은 입학생 엄마 상담 하나씩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상담을 한다면 부모들하고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 면담에 필요한 면담일지는 어떻게 누가 짜고 있는지? 교사의 역할을 파고 들면 준비단계는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한 부분이 우리한테 다 빠져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실 그러한 역할들이 제대로 수행되어질 때에만 이것이 교사의 아동과의 상호작용이나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중심에 서면서 교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행자인 내가 이 모임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이걸 분명히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백희) 이제 이해가 가요.

진행자) 그러면 역할을 좀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까치소리) 우리 원에서는 3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반을 맡게 되면 교사는 연안, 월안, 주간개학년 등을 파지요. 보통 족보라는 것을 토대로 하여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나오는 보육과정이란 책이 책에서 뽑아온 자료들 각 반 담임들이랑 연구한 다음에 피게 되구요. 특별활동이라 해서 과학 언어 미술 체육 마사지... 뭐 그렇게 9개 프로그램을 한 개씩 맡아 연안을 파고, 구체적으로 수업을 일 주일에 몇 번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활동을 누가 할 것인지 역할 분담을 하지요. 이것이 준비되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오리엔테이션은 원장선생님이 진행하고 각자 담임소개하고 교실로 들어가 교사가 교실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내용은 대부분의 원이 비슷하다고 생각되구요. 또, 아동과의 활동 외에 원아수첩은 적지요. 부모 면담은 원장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해라하면 주임이 알아서 정해주고 우리들은 진행하지요.

진행자) 교육 내용은 두 교사가 다 알아서 하나요?

까치소리) 원장님이 체크해주시고 다행인 것은 원장님이 수업에 대해 터치를 안 하세요.

다른 행사나 소풍은 원장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 외에도 유아 중 어떤 아이가 지폐와 같은 발달사항 문제가 보이면 교사는 원장님께 보고하고 나머지는 원장님이 알아서 하지요.

이야기 속에서 교사들의 역할은 '족보'라는 것을 토대로 이제까지 원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역할분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사들의 의견은 어떻게 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진행자) 그러면 활동이나 역할분담 등에 교사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고 있나요?

까치소리) 교사의 업무 이외의 업무는 업무분담표에 따르죠. 어린이집에서 현재 나의 임무는 급식, 식단에 따른 재료의 주문 재료의 확인, 식품관리, 소방관련업무 담당하고 있어서 관련서류랑 훈련이랑...

진행자) 식단 재료 발주도 해요?

생쥐) 그럼 주방아줌마는 뭘 해요?

까치소리) 밥만 하지요.

진행자) 본인은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까치소리) 수업에 대한 터치는 안 하니까 재량권을 주는 편이고, 다른 업무는 원장 말을 들어야 된다고 보았지요. 대부분 교사들이 그래요.

진행자) 역할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까치소리) 예, 저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구요. 주임과 원장님은 이야기하곤했지요.

진행자) 지난 번에 이야기한 역할 분담도 의견을 묻지 않아요?

까치소리) 교사의의견에 이야기하나 편법 순서대로 짚어주는 대로 하지요. 소풍 나들이 날때는 짚어주는 대로 어디가

좋다 하면 갑니다.

생쥐) 소풍가지 전날까지 어딘지 몰라요?

까치소리) 주임이 이야기 해주면 일지만...

진행자) 교사회의는 없나요?

까치소리) 원장님이 하자 하는 날 해요. 보통 한 달에 한번 할 때 저희가 얘기를 토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진행자) 그러면 월안 오리엔테이션까지 담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까치소리) 원장님께 제출하면 체크해서 검사를 받는 정도구요.

진행자) 그러면 교사와 원장과의 의견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생쥐) 주로 주임교사를 통한 하날 형식이네요.

진행자)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까치소리) 대부분의 교사들이 취업을 하면서 바로 업무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 이런 거구나 하게 되죠. 부담이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 원을 나가야죠.

생쥐) 경력교사가 들어올 경우는 어때요?

까치소리) 경력교사는 원장이 문제가 없겠다 하는 교사를 뽑지요.

생쥐) 원장의 역할이 무언지 모르겠어.

까치소리) 원장은 사무원이예요. 음, 그리고 만약에 지폐와 같은 문제가 있는 아동이 있으면 교사는 보고만 하고 아동부모면담 등 사후 처리는 원장이 하죠.

진행자) 교육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해 갑갑하지는 않아요?

까치소리) 교사 스스로 매달 하는 자기평가표가 있어요. 원장이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지적해요.

생쥐) 방식은 아주 우아한데.

까치소리) 보여주는 것을 중시하고 우리 원은 이렇게 하고 있다. 실제로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도 각박하게 하시지는 않는 편이에요.

생쥐) 주 활동 시간에 원장이 들어와요?

까치소리) 수업시간은 안 들어와요. 교육과정은 똑같아요. 전통이 있어요. 새로 맡은 교사끼리 의논해서 파고 다 똑 같고, 역할분담까지 같은데 주임의 역할이 차이가 나요. 원장이 상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 원은 이 틀에서 삼입하고 주임이 원장 대행까지 하지요. 사무도 봐요. 필요하면 아무 때나 불러서 일을 시켜요. 하다보니 내가 과연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사의 역할과 원장과 사무 업무보조 정도죠.

백희) 우리랑 똑 같아요. 14명의 아이를 내가 봐지면 한 명이 보려면 힘들죠. 하루생활 중에서 아이들 위해 쓰는 시간은 10%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행자) 나중에 교사의 역할 하면서 원장의 역할도 이야기해 보면 좋겠네요.

자연스럽게 원내의 의사소통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진전되었으나, 공식화된 의사소통체계는 없다고 보여지고 주로 주임을 통해서 하달형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재의 이러한 운영 체계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드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모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의사소통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아야겠다.

여기서 자리를 바꾸어 아주 편안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어린이집에서 업무 외의 일로 너무 많이 써인 교사의 하소연을 들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서는 주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이 이야기 속에 어린이집의 많은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대로 정리해 보면,

교사 1) 과연 주임교사의 역할은 무엇까요? 교사들의 의견수렴, 사무업무...

교사 2)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느끼는 부분은 야외학습이나 처우에 대한 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죠. 그런데, 반배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나 정작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교사업무분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잘하는데 왜 편입순으로 결정할까?

주임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원장은 모든 걸 주임에게 바른다. 주임은 말을 걸려버리고 원장은 주임교사의 의견만을 듣는다. 주임과 교사의 관계가 처음엔 좋았는데 점차 교사와 주임과의 관계에서 두 파로 갈리고 있고 현재 갈등은 주임을 향해 있다.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전통이라는 것과 초임교사들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에 대해 동료교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교사 3) 주임의 역할은 중간자, 매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예서는 안 되는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정작 원장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요구한다. 이유는 신분보장 등의 문제로 원장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밀고하지 않을까 하는...

교사 4) 주임이 마음대로 하고 원장은 주임만 믿고 있다. 시간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보이고 처음엔 불이익이 우려되어 주임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주임 앞에서 이야기한다.

교사 5) 원장일을 주임에게 업무분담 시킨다. 주방업무, 사무업무, 이물며 부모에게 보육료 독촉 전화까지...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이, 주임의 역할은 매에 달라진다. 주임의 역량과 원장의 외부일에 따라서...

여기서 원장과 교사간의 문제, 주임과 교사와의 문제로 축소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두 차례의 모임을 통해 이 속에서 교사의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우리 교사들은 과연 어린이집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가? 교사들이 이러한 주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두 번의 모임은 참석교사들의 솔직한 자리였고, 이것이 현재의 교사들의 현주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의 모임에서 나온 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다. 다음 모임에서는 그렇다면 교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물리적, 인적 환경-에 대해 이야기 해 볼 것이다.

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사들을 둘러싼 환경은?

- 환경에는 물리적인 환경과 인적환경(원장, 부모, 동료교사, 주방아주머니, 지역사회 등 모두 포함), 조직내 의사소통체계, 리더십, 보상체계 등을 모두 포함함.

2. 이러한 환경이 교사들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교사 1	교사 2
- 한반을 맡기 전 1. 연안을 편다. 족보와 정보센터 자료를 참고해서 2명이 연구하고 편다. 결제를 받는다. 2. 특별활동 9개가 있고 교사당 하나씩 맡고 있으며 연안과 월안을 편다. 3. 오리엔테이션자료-원장용 4. 각자의 반에서 오리엔테이션자료. 5. 만1세까지는 월안이 나가고 그 이상은 주안이 나간다(두명이 한달씩 돌아가며 편다). 6. 일지-각 1명이 원아발달사항을 쓴다. 8. 원아수첩은 매일 교육활동 음식 발달사항 준비물 수면시간 건강상태를 기록한다. 9. 면담-원장이 정하는 기간에, 일지는 주임이 만든다(알아서) 10. 교사별 시설역할은 전통으로 이어진다. 11. 소풍이나 야외활동은 원장이 날과 장소를 정한다. 12. 교사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월 1회 정도 13. 기타행사의 기획도 원장이 한다. 14. 보육교사 이외의 업무는 업무분담표에 따른다. 15. 나는 급식담당과 소방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재료를 주문하고 식품을 관리한다.	1. 하루 생활중 아동을 위한 시간은 10% 2. 아동관련 서류의 정리는 0% 3. 교육을 위한 준비는 0% 4. 청소 잡무 5. 원행정 및 원장님 비서 70% 6. 휴식 0.5% 7. 기타 전화등 상담 15%

수업에 대한 터치는 없다.

문제의 발견과 보고는 교사가 사후처리는 원장이 한다.

교육활동에 대한 슈퍼비전은 없다.

교사 스스로 자기평가, 간혹 가다 지적하기도 한다.

교사회의는 원장의 필요에 의해 한 달에 한번정도 한다.

주임을 통한 하달 형식이며 원장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장은 없다.

형님들과 함께

2003년 인천 생협 예술 어린이집 유아반은 처음으로 5·6·7세 연령 통합반으로 구성되어 활기찬 10명, 흥겨운 12명-22명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방과후는 1·2·3학년 총 10명이 꾸러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월요일 오후 4시-5시는 "형님들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으로 유아반 1개반과 방과후 1·2학년 형님들이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 오래 해온 것은 아니지만 유아반 연령 통합을 하게 된 배경과 운영방법, 변화 등 그동안 해온 연령통합 보육활동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형님들과 함께"라는 활동을 하게 된 배경

방과후반에 총 인원이 10명의 적은 수라고 해도 1·2·3학년으로 구성되어 학년별 활동(예술 방과후는 숙제나 학습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바깥놀이나 취미, 덕견, 생태활동을 합니다)에 집중하기에는 학교에서 오는 시간 차이, 활동범위, 활동내용이 다양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반에서는 도우미 교사가 필요했으나 어린이집 재정적으로 교사 인건비 지출이 어려운 상태였고 대안을 생각하던 중 영아반, 유아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매주 1시간만이라도 1·2학년과 3학년을 분리 할 수 있으면 방과후 교사가 3학년과 차를 나누는 조용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6개월 상반기만 실행해보고 평가하기로 하고 지금 실행 중입니다. (처음 계획 된 영아반 4세 도서관 가기에서 형님들 도우미 활동은 영아반 교사에게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어 2회 실행 후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 계획과 준비

처음 계획으로는 유아반 모두 참여해서 하는 활동으로 바깥놀이 도우미, 아이들 문집 만들기 활동을 하기로 했으나 유아반 22명에게 형님들 6명(1학년 2명, 2학년 4명)이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내용에 충실하지 못 할 것 같아 활기찬반과 흥겨운반을 2주씩 돌아가면서 활동하기로 하고 활동 내용과 진행은 담당 유아반 교사 재량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진행

- 1회 · 2회 (활기찬반)

*바깥놀이-5세 동생 1명에 꾸러기반 1명 학지어 놀이터로 이동하여 모래놀이를 이용한 터널 만들기, 길 만들기, 웅덩이 만들기 놀이.

*손바닥 찍기-준비를 준비와 활동방법 설명, 뒷정리까지 형님들 인솔하여 하도록 함.

- 3회 · 4회 (흥겨운반)

*팀별로 지점토 목걸이 만들기 2회 연속 작업-형님 1명에 동생 5,6,7세 각 1명씩 4명이 한 팀이 되

어 자기팀 이름을 정하고 이름대로 목걸이 만들기.(꽃, 곰돌이, 코끼리, 물고기) 물감 칠하고 다음 활동부터 팀별로 목걸이 착용하고 활동하기.

- 5회 · 6회 (활기찬반)

*바깥놀이-놀이터 선택(예술 주변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많다)에서부터 형님들이 직접 선택하게 함. 지난번과 다르게 형님들이 직접 그네도 태워주고 동생들과 공놀이도 함.

활동 진행 방식

우선,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정하게 하고, 교사는 활동 속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 형님들이 주도적으로 동생들과 수행하기로 합니다. 동생들이 교사에게 하려는 질문이나, 도움은 무조건 형님들에게 직접 말하게 하여 형님들이 해결하거나 형님들이 교사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1시간동안에는 형님들이 모든 활동에서 동생들의 책임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활동 평가

6회 정도 진행하고 평가를 하기에는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짧은 횟수에서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의 역동성과 적응력은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

처음 "형님들과 함께"는 방과후 아이들이 도우미 역할에 대해 "나는 하기 싫어요"라며 불평을 많이 하고, 동생들과 함께 놀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놀고, 손잡고 오다 먼저 어린이집으로 뛰어 들어오고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교사가 모든 것을 형님들에게 물어보고, 상황에 간섭을 하지 않고 시작과 마무리까지 역할을 맡기니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신발 벗겨주기, 마무리 청소 등) 동생들이 걸레질하는 것까지 뺏아서(?)하기, 자기네 팀 찾아서 앉히기...), 방과후 교실에 가셔도 담임선생님에게 재미있다고 하며, 유아반 동생들은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바깥놀이에서도 형님들을 쫓아 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님 말씀

1·2학년 6명중 여자아이가 1학년에 1명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 이후로 집에서 동생과 노는 것이 변했고, 기분이 좋아지고 재미있다는 소리를 해서 엄마 입장에서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해주셔서 진행 중에 힘이 납니다.

교사가 바라 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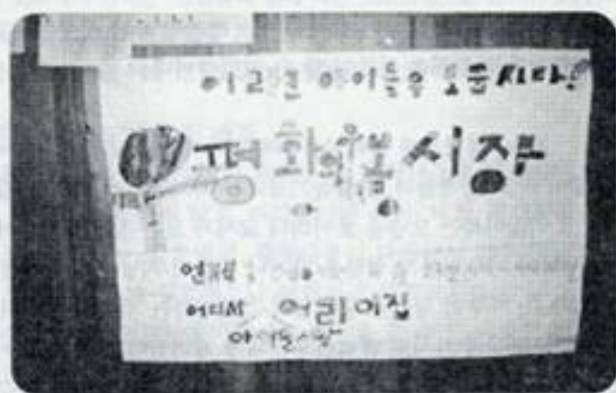
방과후반 교사 입장에서는 처음 기대 했던 만큼의 도움(3학년 아이들과의 시간 활용)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 맞추어 아이들 챙겨서 보내 주는 것이 일이 되었다고 하여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현재 방과후 도우미 교사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아반 교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5·6·7세 연령 통합반에 방과후 아이들까지 통합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나, 활동을 같이 할수록 방과후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유아들과 다른 활동 내용이나 태도...)이 줄어들었고, 상황에 따른 아이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볼 수 있는 기회이고, 방과후 아이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이며, 이후 아이들간의 관계가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책임감과 성취감을 확인하는 협동 작업물이 나올 수 있는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예: 문집.)

평화의 봄시장

전운이 감돌던 3월 초부터 아이들의 주된 놀이 장소인 부산대학교 안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팸플렛이나 플랭카드, 사진전 등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이중에도 아이들의 눈길을 끌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아마도 '전쟁과 어린이'라는 사진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1. 동기

전쟁이 시작된 3월 20일을 전후로 해서 문창회관에 전시된 사진전은 잔인하고 참혹해 보여 때론 아이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 피하기도 했지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에서 시작하여 사진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라크 어린이들 불쌍하다. 우리가 도와주자" "병을 치료할 수 있게 우리가 약을 보내주자" "먹을 것이 없다는데 우유를 보내주자"라는 생각들로 모여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정말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겠니?"라는 물음에 결의에 찬 듯 "할 수 있다."를 외치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건데?"

"약이나 우유를 보내주면 되잖아"

"약하고 우유를 어떻게 구하는데?"

"돈 주고 사면 되잖아?"

"그럼 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맞다! 우리가 돈을 벌면 되잖아"

2. 방법논의

결국 전체 모임에서도 이러한 아이들의 생각을 어린이집의 모든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의논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후 다시 한번 못말리는반 아이들과 길알잡이반 아이들의 모임에서 이라크 어린이들을 돕자는 결의에서 한발 나아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이들의 기발하고도 치밀한 아이디어들에 어른들 모두 혀를 내두르고 박장대소를 하기도 했다.

"우리가 카페 할 때 모은 돈 있잖아. 그것으로 도와주자."

"그 돈은 얼마 안 돼서 몇 명밖에 못 도울 것 같은데"

"집에서 아빠랑 같이 불우이웃 도우려고 모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보내고 싶어"

"혼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빠랑 의논을 해봐야 하지 않겠니?"

"아마 될 것 같은데..."

"식당을 열자!"

"카페를 열고 차를 팔자."

"카페에서 공연(마술이나 노래, 무용 등)을 해서 돈을 모으자."

"우리 아이리크축구시합 입장권을 만들어서 판매하자."

"신문, 책을 만들어 팔자."

"감동적인 용변을 해서 부모님을 감동시켜 돈을 모으자."

"운동회에서 선수들이 사용할 물수건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자."

"어린이집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이고 모금을 하자(봉투를 부착해놓자)"

"저금통을 만들어 나누어주자."

"포장마차형태로 길에서 주스, 과자 등을 팔자."

"봄나물을 뜯어 팔자"는 의견까지 하나 더 보태서 '엄마아빠한테 조르자'는, 다소 교양은 없어 보이지만 가장 위력적인 제안까지 전차로 다양하고도 깜짝깜짝 놀랄만한 얘기들이 속출했다.

그래서 이날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카페를 하자(메뉴와 공연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 '전쟁반대 평화의 봄시장'을 열자 -우리가 캔 각종 나물, 각종 모종이나 봄꽃(오시게 시장 등지에서 싸게 사와 조금의 이익을 남기고), 우리가 직접 만든 봄꽃차(진달래차, 목련차, 개나리차, 매화차 등) 등을 파는 시장을 열고, 거기에 이라크 어린이들의 사진도 붙여 놓고 감동적인 용변도 하고 모금함도 만들어 놓자
- 1리크 축구시합 입장권 판매 - 5월5일 가족 체육대회 때 경기를 갖고 입장권을 미리 판매하자.
- 자발적인 모금을 위해 저금통을 만들어 나누어 주자.

3. 준비과정

따라서 아이들의 4월 계획은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전쟁반대, 평화의 봄시장」이 열리는 날짜를 4월 23일로 잡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일이 아이들에게는 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① 못말리는반 (6, 7세) 아이들의 봄꽃차 담그기

제일 먼저 아이들이 시작한 일은 꽃이 피는 시기별로 그때그때 봄꽃차를 담그는 일이었다. 봄별 좋은 한때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어린이집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매화꽃잎을 즐기거나 따서 물에 행구고 마른 행주를 이용하여 꽃잎의 물기를 닦아낸 후 유리병에 꽃잎과 설탕을 키키이 채워 놓았다. 이후 백목련, 개나리, 진달래꽃도 매화와 마찬가지로 차를 담그게 되었는데 그 꽃잎은 주로 부산대학교안과 장전초등학교 뒷산의 나무에서 찾을 수 있었고 차를 담그는 실력도 점점 늘어 유리병 안에서 설탕을 휘저어 뿌려주는 솜씨까지 발휘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행주에 꽃잎의 물기를 닦으며 묻어나는 색깔도, 꽃마다 나름대로의 향도 아이들에게는 오래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② 길앞잡이반(8, 9세) 아이들의 전시용 사진 구하기

방과후반인 길앞잡이반 아이들은 특히나 나들이에 가지부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비 오는 날에 산책 삼아 부산대학교로 사진을 구하러 가게 되었다. 사진전시회가 이루어졌던 문창회관으로 바로 가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학생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만나는 학생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학교 안에 들어서자마자 지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

“저기요, 이라크 어린이들 사진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당시에도 도서관이나 각 단대별로 내부에서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던지 학생들 대답이

“저 위쪽 상대나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아니요, 사진은 본 적이 있는데 구하려고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텐데..”

“해봤는데요, 그 사진은 못 찾겠구요, 작은 것밖에 없어서요. 큰 사진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학생회에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학생회가 어디 있는데요?”

“문창회관에 가서 한번 물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학생이 있을지도 몰라. 문창회관으로 가봐. 아니?”

“네, 고맙습니다. 야 가자!”

문창에서 만난 몇 명의 학생들에게서 모르겠다는 이야기만 듣다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자며 건물 안을 돌아다니다 복도 한쪽에 세워진 몇 장의 사진을 보고 “이거다”를 외치며 열문(총학생회)을 노크하고 들어가 사진을 요청하는 아이들이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사진 몇 장을 손에 쥐

어주니 밖에 있는 것처럼 큰 사진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에 부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나서 5,000원 상당의 ‘전쟁과 어린이’라는 전시용 사진세트를 공짜로 얻을 수 있었다.

③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의 봄나물캐기

3세의 때굴때굴에서부터 제멋대로, 못말리는, 길앞잡이 모두가 나들이장소 곳곳에서 나물을 찾아보고 미리 직접 만들어 시식을 해본 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좀더 많은 양의 나물을 캐는데 주력을 했다. 가장 흔한 곳에서부터 망초, 개망초, 제비꽃, 지느러미 엉겅퀴, 돌나물, 별꽃나물 등을 조금씩 조금씩 캐서 모두 모았다. 나물종류별로 캐보기도 하고 때로는 여자팀과 남자팀으로 나누어 시험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물대장이 탄생하는가 하면 어린이들은 캐놓은 나물을 한곳에 모으는 배달하거나 똑같은 나물을 찾아보는 일 등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물 캐기가 이루어졌다.



나들이 나가 캐온 나물을 다듬는 못말리와 길앞잡이

④ 못말리는과 길앞잡이의 저금통 만들기

대선의 영향이었는지 한 아이의 제안으로 시작된 저금통 만들기는 자발적인 모금을 위하여 봄시장에서 나누어 주기로 하고 어린이집의 조합원 한 가구당 한 개에 해당하는 개수의 저금통을 만들기로 하였다. 아이들의 간식으로 먹고 남은 빈 요플레통이 어린이집에 많이 남아있었고 집에 있는 빈 플라스틱 통들을 들고 와서 입구를 막고 구멍을 낸 후 한지를 찢어 밀가루풀로 부쳐 표면을 예쁘게 꾸며서 저금통을 만들었다. 주로 평화나 사랑, 전쟁반대, 희망의 나무 등으로 꾸며 저금통에 그 의미를 더하게 만드는 아이들이 많았고, 한번 저금통으로 쓰고 버리기에는 아까울 정도의 작품들도 나왔다.

⑤ 못말리는과 길앞잡이의 오시계 시장 다녀오기

5일장인 오시계 시장에서 봄시장에서 팔기로 한 봄꽃과 모종도 사고 제멋대로와 때굴들이 요리활동으로 강정 만들기를 했던 경험으로 이번 행사에 강정을 만들어 팔기로 해 필요한 재료도 사기 위

하여 장날에 맞추어 나들이를 다녀왔다. 시골 5일장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을 볼 수도 있고, 뽕튀기 소리에 귀를 막아가며 시장에서의 특별한 간식거리도 먹을 수 있는 신나는 시장나들이로 고추와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고 각자 고르고 싶은 봄꽃도 골랐다. 쌀을 한 되 팔아 거의 1시간 이상을 줄을 서서 기다려 뽕튀기를 하고 강정재료로 땅콩도 함께 사서 돌아왔다. 어린이집에 돌아와 가격을 조정한 후 화분에 꽃이름과 함께 가격표를 부쳐두는 일까지 이루어졌다.

⑥ 제멋대로와 때때때글들의 강정만들기

평소 요리활동처럼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강정을 만드느라 오랜 시간 작업을 하는데도 그것을 꼭 참아가며 다 만들고 나서야 겨우 하나씩 맛을 보는 모습은 대견함 이상이었다.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강정을 책상에 넓게 펴서 식혔다가 봉지에 일정량으로 포장하고 가격표를 부쳐두었다.

⑦ 최종준비

행사를 이틀 앞두고서 아이들이 함께 모여 처음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체크해가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점검하고 준비하기로 하였다. 아직 못 다한 일은 행사당일과 전날에 마무리를하기로 하고 미리 알려주기 위한 포스터와 간판제작, 행사날 사용할 모금함 만들기, 사진을 전시판넬 만들기 등이 이루어졌다. 팀으로 3~4명씩 나누어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사진팀은 인터넷으로 찾아놓은 자료와 총학생회에서 구한 사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판넬에 부치고 행사때 어떻게 전시를 해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논까지 이루어졌으며, 모금함을 만드는 팀은 빈 상자를 하나 구해와서 예쁘게 꾸미고(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싣고 가는 배를 만들어서 부쳤다.), 포스터에는 장소와 시간 등을 기록하여 어린이집 게시판에 부치고, 간판을 전등이 끝난 이후라 처음과 달리 "평화의 봄시장"이라 수정하여 만들어 놓았다.



⑧ 감동적인 연설문 만들기

감동적인 용변을 해서 모금을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아이가 행사 이틀 전까지도 연설문을 만들지 않아서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들고 온 연설문이 다음과 같았다.

「여러분! 저 불쌍한 이라크 어린이들을 보십시오. 저는 "죄 없는 불쌍한 어린이들이 왜 죽어야 하느냐"라고 부시에게 따지고 싶습니다. 이라크 어린이들은 맞아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라크 어린이들이 맞아 죽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굶어 죽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조금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라크 어린이들을 도와줍시다.」

한마디로 핵심을 이야기하는 이 아이의 연설문을 보고 교사가 다음과 같이 약간의 수정을 하여 현장에서 용변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여러분! 저 불쌍한 이라크 어린이들을 보십시오. 저는 "죄없는 불쌍한 어린이들이 왜 죽어야 하느냐"라고 부시에게 따지고 싶습니다. 이라크 어린이들은 폭탄에 맞아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라크 어린이들이 폭탄에 맞아 죽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굶어 죽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조금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라크 어린이들을 위해 성금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먼저 힘을 모으겠습니다. 엄마, 아빠들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4. 최종정리

행사 당일에는 아이들이 미리 차를 준비해 시식해보고 가격을 정하기도 하였고, 그동안 준비한 나뭇잎을 다듬어 일정량으로 포장하여 가격표를 부치고 처음으로 접하는 봄나뭇잎에 대하여 부모님들에게 나뭇잎에 대한 설명과 나뭇잎 만드는 방법을 직접 적어서 봉투 안에 함께 포장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5. 시장 열리는 날

따뜻한 봄햇살 아래 어린이집 마당에서 열기로 한 계획과는 달리 행사 당일엔 비가 오는 바람에 어린이집 안에서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어린이집 현관에 간판을 걸고 아이들이 모두 팀을 나누어 '강정 파는 가게', '봄꽃과 모종 파는 가게', '나뭇잎 파는 가게'로 역할을 나누었고, 우리가 직접 만든 저금통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누어주는 자리, 계산하는 자리까지 모두 마련하여 시장이 열렸다. 손님들이 모여들면 위의 감동적인 연설도 진행이 되었고 그때마다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때를 맞춰 한 아이는 어른들 사이에 모금함을 들고 다니며 모금을 하기도 하였다. 모든 가게들이 일찌감치 품절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였고 전시된 사진 앞에서는 어른들의 발길이 머물기도 하였으며 아이들이

담근 봄꽃차(개나리, 백목련, 매화, 진달래차)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대단한 호응을 보이며 성금 모금에 한 몫을 했다. 물론 강정도 "이보다 더 맛있을 수는 없다"라며 계속 찾는 사람들도 있었다. 집에서 저금통을 가지고 오기로 했던 아이는 아빠와 의논을 하여 저금통을 선뜻 들고 와서 내놓았고,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카페의 수익금도 성금으로 내기로 하였으며 못말리는반과 길알잡이반의 저금통, 모금액 등을 모두 합하여 전액을 성금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다.



시장을 열어 나물, 감정, 모종, 저금통을 파는 아이들과 시장 보는 어른들.



감동적인 연설을 듣고 있는 어른들

6. 평가

행사가 끝난 다음날에는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모금된 돈을 계산해보고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몇몇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주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기 자리에서의 역할을 잘 해 주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너무 소란스러웠다는 것과 가게 주인이 손님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은 것 등은 고쳐야 할 점으로, 물건이 부족한 것과 비로 인하여 봄시장을 밖에서 하지 못했다는 것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스스로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일을 해서 돈을 모으게 되고, 따라서 이라크 어린이를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러움을 나타낸 것 같다.



【평화를 꿈꾸는 보육】

아이들과 함께 하는 평화교육

서정은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얼마 전에 종료된 이라크 전쟁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화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이번 전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쟁반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뿐 아니라 반전을 뛰어넘어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9일 우리 회 교육센터에서 진행한 [현장교사와 함께하는 예비교사워크숍] 평화교육 강사로 수고하신 서정은 선생님의 강의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덧붙여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가 최근 발표한 '반전·평화 어린이책 목록과 반전평화 관련 자료들'을 같이 소개합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전쟁 소식을 다룬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 전쟁은 왜 하는 거예요?" 갑작스런 아들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여기서는 누가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미국이랑 한 팀이지요?" 한다. 그 말에 놀라 그 말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묻자, "러시아와 중국이 한 팀이고 미국이랑 우리가 한 팀이었어요." 한다.

지난 3월 20일에 미국은 세계의 여러 나라가 것처럼 반대하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이라크의 인구 절반은 18세 이하의 아동이고, 전쟁전의 막한 치지와 현재 전쟁으로 인한 불행한 상황이 신문과 뉴스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일부는 전쟁반대를 외치며, 일부는 이라크 아동을 위해 의료품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일부는 아이들에게 반전평화교육을 하고 있다.

일부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전쟁과 게임을 동일하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의 아이들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밝히기도 한다.

일부의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고 놀라기

도 하고, 아이들의 생각과 질문에 대해 짐짓 모른 채 하기도 하며, 일부는 전쟁을 주제로 한 여러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하며 그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육교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바깥의 이런 복잡한 세상에 대한 관심을 하루종일 철없는 아이들과 씨름하며 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보육교사들도 이러한 현실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유아들과 전쟁·평화와의 관련성에 대해, 혹은 반전·평화교육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과 의견을 가다듬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평화교육의 필요성

현대의 전쟁과 폭력의 문화를 극복하고 인류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이 필요하다.

1997년 유엔총회에서는 2000년을 '세계평화문화의 해'로 선포하고, 그 이듬해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을 '평화의 문화와 세계어린이들을 위한 비폭력 10년'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유엔과 유네스코는 새 천년을 평화문화로 세우기 위해 '평화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을 발표하고 전세계인 1억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평화교육학자들은 인간의 공격성이나 적대의식,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경쟁적이나 협동적이나의 태도는 아주 어릴 때 형성되며, 전쟁이나 폭력을 경험한 유아들은 문제해결 방법으로서의 폭력에 긍정적이며 폭력 이외의 해결 전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Bronfenbrenner(1979)는 사회-생태학적 이론을 주장하면서, 유아들이 경험하는 특정한 배경이나 환경이 그들의 발달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Williams(1991)는 교사가 유아들의 참조의 틀에 연관되게 교육 과정 경험을 구축함으로써 유아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계 사이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학습이란 교사에 의해서 학습내용이 학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제시하는 학습내용과 학습자들의 인지구조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일어난다고 보는 근래의 구성주의 교육철학자들에게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의 인지구조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개념들은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만약 학습자의 인지구조 내의 개념들이 여러 가지 선행경험에 의해 이미 왜곡되어 있다면 그 선입관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학습에 의해서 반드시 수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격이나 지능이 정립되기 전 단계인 인생의 초기단계인 유아기에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를 받아들이고 이루기 위한 평화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2. 평화에 대한 개념

J. Galtung은 평화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초월하여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인간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이며,

C.F. Weizsaecker은 평화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상태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삶의 조건으로 전쟁으로부터의 해방, 기근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무지로부터의 해방, 비참한 주거생활로부터의 해방, 자연환경의 보호,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를 제안하였다.

함석헌은 첫째, 평화의식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전체의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운동은 바로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에 앞서야 한다. 셋째, 한국민족의 특성에 대한 재인식은 한국만의 평화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약하고 무능하고, 이름 없는 움지에서 고난받는 민중이 평화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세계를 평화로 이끌 수 있다.

Balasooriya(2001)는 평화의 원천으로 내적 평화, 사회적 평화, 자연적 평화를 들고 이를 통하여 총체적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러한 총체적 평화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평화적인 인간상'은 10가지 덕목을 갖춘 인간으로 보았다. 즉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인간, 동정심을 갖고 남을 해치지 않는 인간, 내적 평화를 발견하는 인간, 함께 사는 삶을 학습하는 인간, 인간성을 존중하는 인간, 진실된 자기가 되는 인간, 비판적 사고가 발달된 인간, 비폭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인간, 사회의 평화를 구축하는 인간, 세계 및 지구를 보호하는 인간이다.

평화의 개념은 단순히 전쟁이나 직접적 폭력의 부재가 아니라,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드러나는 구조적 혹은 간접적 폭력의 극복을 의미한다. 즉 평화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통합적 개념이다. 그 하나는 전쟁과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폭력의 부재로서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갈등의 원인이 제거된 것 등의 비착취적 관계의 극복 혹은 정의와 안녕을 위한 조건 등을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등이 그것이다(김정수, 2003).

3. 평화교육의 목적과 목표

평화교육의 목적은

- 1) 평화의 기회와 평화의 근원뿐만 아니라 반평화의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 2) 평화문화를 위한 행위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술과 가치를 기를 수 있는 것이다.

D. Hicks(1988)는 평화교육의 학습목표를 지식, 기술, 태도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1) 지식의 영역: 갈등문제, 평화문제, 전쟁문제, 핵문제, 정의문제, 권력문제, 성문제, 인권문제,

생태학적문제, 미래에 관한 문제

- 2) 기술의 영역: 비판적 사고, 협력, 공감, 단호함, 갈등해소, 정치문제
- 3) 태도의 영역: 자아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열린 마음, 전망, 정의에 대한 헌신

4. 유아 평화교육의 준비

미국의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¹⁾, 북아일랜드의 '상호이해교육'²⁾ 등 각 나라의 평화교육 프로그램들은 각 지역의 분쟁과 갈등의 현실에서 오랜 기간동안 실험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된 것이다(김정수, 2003).

따라서 몇몇 평화인권단체에서 성인 대상으로 진행해 온 우리나라는 평화교육의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 게다가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와 실정을 고려한 평화교육의 전략, 내용,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 유아들이 함께 하는 평화교육에 대해 더욱 더 많은 논의와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1.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가 관찰하기

현재 많은 매체를 통해 미국-이라크 전쟁에 대해 전해들은 유아들도 있으나 아이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다면, '전쟁'이라는 주제는 그리 적당한 주제는 아니다. 따라서 유아가 전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사는 주의깊은 관찰과 기록을 우선해야 한다.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 만 3세 이전의 아이들 또는 그 이상의 연령에서 미국-이라크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언급되는가?
- 아이들은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아이들이 전쟁과 관련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은 무엇인가?
- 아이들은 전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2. 이러한 관찰의 결과로서, 교사는 아이들이 전쟁에 대해 잘못된 정보나 지식, 의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가능한 자세하게 써본다.

이 단계에서 만일 유아의 경험과 일상생활과 유리된 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사

- 1)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peaceable classroom)만들기'는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이라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사회의 폭력문화가 그대로 분출되는 교실에서 학생들은 의사소통, 분노조절, 편견과 적대감 줄이기, 갈등분석, 협동, 중재, 협상 등의 기술들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아 존중감 향상, 타인에 대한 인정과 관용을 위한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 2) 북아일랜드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리되어 온 오랜 역사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학부모 그룹과 시민단체, 평화단체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계형성 촉진, 갈등의 평화적 해결, 상호의존성에 대한 자각,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 등의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놀자'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다. 그러나, 평화교육은 설교나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라, 유아들 스스로 비폭력과 평화적인 가치와 태도를 받아들이고 가능한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사는 전쟁에 대해, 폭력적 해결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정리해 본다.

- 내가 어렸을 적에 갈등을 느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내가 어렸을 적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방법은 무엇인가?
- 내가 어렸을 때 싸움을 했었던 기억과 그때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4. 전쟁중의 아동인권에 대해 관심 갖기

- TV, 영화, 소설 등에서 전쟁과 평화를 다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이야기 나누기
-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TV, 비디오, 영화 프로그램에 대해 비평하고 항의하기
- 아동인권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지역인권단체나 모임에 가입하기
- 세계의 아동인권 상황에 대해 관심 갖고 공부하기

5. 주위 교사와 부모, 원장들과 평화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UN아동권리협약을 돌려 읽고 이야기 나누기
- 교사와 부모가 생각하는 평화교육의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평화를 이루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목록화 하기
- 평화를 이루기 위한 보육시설과 가정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6. 일상생활에서, 교육활동에서 평화, 비폭력의 문화를 실행하기

5. 교사가 고려할 사항

1. 전쟁, 평화, 통일 등의 주제가 어린 학생들을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는가 하는 원장이나 부모의 우려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TV 등을 통해 이들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제 나름의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제를 가르치는 일이 위험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아동들이 아무런 과정 없이 받아들이는 게 문제이다. 우리는 유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능한 한 필요로 하는 기술, 나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 가능한 취해야 할 태도 등에 대해 알리는 것이다.

2. 평화교육은 교사주도적, 지식적 활동이 아니라 아동중심의 참여주의적 방식에서 이뤄져야 한다.

3. 유아와 유아간(또는 교사와 유아간) 생각의 차이점을 존중하되 억압적인 생각과 행동은 존중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주제가 드러났을 때는 덮어버리기 보다는 오히려 직면하고 유아들이 어떠한 대응을 할지 토의토록 한다.

5. 교사는 단답형의 대답, 도덕적 판단의 대답을 내리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쟁, 평화, 인권 등 '가치지향적'인 도덕적 질문들은 예 또는 아니오로 단순하게 답변할 수 없다. 아동들의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정확한" 답변을 찾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교사는 아동들에게 이들 복잡한 이슈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이후 생활에 그것들이 관계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 많은 성인들은 아동들이 비판적 사고를 연습하면 반드시 격렬한 저항으로 나선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우려는 일정부분 맞다. 평화교육은 '저항과 행동'을 동반한다. 평화교육은 평화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며, 아동수준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여러 실천과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7.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말하는가? 명심하자.

전교조의 [반전평화수업]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아동들이 제대로 알 권리가 있으며, 반전과 평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전 교육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가치주의이며, 의식화과정이라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유아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 더 나은 책임과 참여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또한 교사들은 특별한 정책, 정당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유아들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6. 맺음말

앞서 우리 아들의 왜 전쟁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어른들 중에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뒤의 연이은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하였다. 내 아들이 자신이 알고 싶은 만큼, 이해하는 수준에서 적당한 대답을 찾았는지는 모를 일이다. 아들이 친구들과의 대화와 게임에서, 세상에서 접하는 여러 정보 속에서 나의 대답이 어느 정도로 설득력을 가질지도 모를 일이다.

가정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은 세상의 여러 일들과 맞물려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1989)은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을 위협하는 위급한 전쟁상황에서 국가와 성인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들의 생존과 보호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유아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 좀 더 나은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주부 김모(39)씨는 컴퓨터 앞에 앉은 아들(11)이 집중하고 있는 모니터 속 사진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국-이라크전에서 사망한 시민과 군인들이 숨진 모습을 담은 사진이 주를 이뤘기 때문.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아들을 추궁한 김씨는 이러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말문이 막혔다.

이라크전의 선정적인 '방송전'이 우려할 만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쟁으로 숨진 피해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인터넷에 나돌고 아동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이같은 사진이 버젓이 등록돼 있다.

현재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잔혹사진은 수십 여 장. 한결같이 이라크 아동, 민간인, 군인 등이 머리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잘린 채 숨진 참혹상을 담은 사진이다. 이 사진은 카타르 민영방송사 알 자지라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나 이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에 의해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반전시민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무차별적으로 퍼졌다.

문제는 호기심을 느낀 초등학교생들이 이같은 사진을 모으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서울 A초등학교 이모(30) 교사는 "전산교육시간에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전쟁 사진을 보거나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대 최윤진(47, 청소년교육과) 교수는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잔혹한 사진은 아이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각 매체들이 자극적인 장면을 내보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한울기자 erasmo@segye.com

(사)어린이도서연구회가 권하는 <반전·평화 어린이책>

갈래	책이름	저자·옮김	출판사	대상
그림책	왜?	니콜라이 포포프 글·그림	현암사	유아
	고릴라 왕과 대포	나마지 사부로 글 / 꼬비야시 유우시 그림	한림출판사	유아
	여섯 사람	데이비드 매키 글·그림 / 김중철 옮김	비룡소	유아, 저학년
	생명과 전쟁	에리 바워 글·그림	교학사	유아, 저학년
	시냇물 저쪽	앨리스베타 글·그림 / 홍성혜 옮김	마루별	유아, 저학년
	조마 구름 과일이	토미 용거라 글·그림	비룡소	유아, 저학년
	곰 언덕 오도	토미 용거라 글·그림	비룡소	저학년
	나는 평화를 꿈꾸요	유니세프 엮음 / 김영무 옮김	비룡소	저학년
	어머니의 감자밭	아니타 로벨 글·그림 / 장은수 옮김	비룡소	저학년
	달보다 멀리	크리스틴 헐리스 글·그림 / 심재중 옮김	한아달	저학년
만화	바람이 불 때에	레이먼드 브릭스 글·그림	시공사	고학년, 청소년
	히어파시의 노래	몽벨로우 시 / 수잔 제퍼스 그림 / 부수영 옮김	보림	고학년, 청소년
만화	전쟁의 전 1-10	나카자와 케이지 글·그림/김송이·이종욱 옮김	아름드리미디어	고학년, 청소년
	전쟁중독	조엘 안드레아스 지음/ 평화네트워크 옮김	창해	청소년
만화	아프리카평화	아프리카평화 글·그림	아름드리미디어	청소년
우리동화·소설	밤대기 죽이기	권정생 지음	바오로딸	고학년
	살롱 이야기	어린이도서연구회 엮음	오늘	고학년
	무기 팔지 마세요	위거릴 글/ 이희재 그림	청년사	고학년
	전쟁과 소년	윤정모 글/ 김중도 그림	푸른나무	고학년
	슬픈 낙산	권정생 지음	우리교육	고학년, 청소년
	물살안니	권정생 지음/ 이철수 그림	창작과비평사	고학년, 청소년
	초가집이 있던 마을	권정생 지음	문도출판사	고학년, 청소년
	손님	황석영 글	창작과비평사	청소년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글	웅진닷컴	청소년
외국동화·소설	평화는 어디에서 오나요	구드룬 파우세발 지음/김중철 엮음/신홍민 옮김	웅진닷컴	저학년
	산적의 딸 오나	이스트르드 렌드그렌 글/ 일본 미카미노 그림/ 이진영 옮김	시공사	고학년
	핵전쟁 뒤의 최후의 아이들	구드룬 파우세발 지음/ 김두남 옮김	유진	고학년
	니코 오빠의 비밀	알키 지 글/ 마상용 그림/ 최진경 옮김	창작과비평사	고학년, 청소년
외국동화·소설	크릭케	제타 헤르틀링 글/ 유해자 옮김	세계적	청소년
	태양의 아이	하이디니 겐지코 글/ 오석윤 옮김	알침북	청소년
외국동화·소설	세로니모	로리스티 카터 글/ 김옥수 옮김	아름드리미디어	청소년
기타	전쟁은 왜 일어날까	질 제로 글 / 세르주 블로크 그림	다섯수레	교사, 학부모
	다영이의 이슬람 여행	질다영 지음	창작과비평사	교사, 학부모
	보거와 함께 미얀 7일간의 특별한 여행	질베르 시누에 글 / 홍세화 옮김	에담	교사, 학부모
	이슬람 문명	정수일 지음	창작과비평사	고학년
	우리들의 하느님	권정생 산문집	녹색평론사	청소년
	도토의 눈물	구로야나기 테츠코 지음 / 김경원 옮김	작가정신	청소년
	해방전후사의 인식	송건호 외 엮음	한길사	청소년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	디 브라운	나무를 심는 사람	교사, 학부모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권하는 <반전 평화 어린이 책>은 그림책 12권, 만화 3권, 우리 동화·소설 9권, 외국 동화·소설 7권, 기타 8권으로 모두 39권입니다.

<반전 평화 어린이 책>에서 권하는 '대상'은 그 나이부터 모든 사람에게 권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권하는 '대상'이 '유아'면 유아에게만 권하는 책이 아니라 유아 '부터' 초등학교, 청소년이 모두 함께 읽기를 권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50문 50답(번역)

1. 세계 인구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답: 6%
2. 세계의 부에서 미국이 소유한 비율은?
답: 50%
3.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답: 사우디 아라비아
4. 석유 매장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답: 이라크
5.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군사 예산은 얼마인가?
답: 9조 달러(USD) 이상
6. 이 중 미국이 군사 예산으로 지출하는 돈은 얼마인가?
답: 50%
7. 미국의 군사 지출 중에서 전 세계 모든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될 비율은 UN에 따르면 얼마가 될 것인가?
답: 10% (미 군사 지출의 10%는 약 4백억 달러이다. 이 액수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위해 필요하다며 요구한 액수이기도 하다)
8.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몇 명에 이르는가?
답: 8천6백만 명
9. 이라크는 언제부터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를 보유했나?
답: 1980년대 초반부터
10. 이라크는 이 화학, 생물학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는가?
답: 아니오, 원료와 기술 모두 미국과 영국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제공해준 것이다.
11. 미국은 이라크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독가스를 사용한 것을 비난한 적이 있는가?
답: 없다.
12. 1988년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의 도시 할라바(Halabja)에서 독가스를 살포해 죽인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답: 5천명

13. 당시에 서구 몇 개국에서 이 행동을 비난했을까?
답: 한 나라도 없다.
14. 베트남에서 미국이 사용한 고엽제는 모두 몇 갤런인가?
답: 천7백만 갤런
15. 이라크와 9.11 테러 공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증명된 것이 있는가?
답: 없다.
16. 걸프전에서 사망한 민간인 숫자는 몇 명으로 추정되는가?
답: 3만5천 명
17. 걸프전에서 이라크 군대에 의해 사망한 서양 연합군의 숫자는 몇 명인가?
답: 한 명도 없다.
18. 퇴각하던 이라크 군인들 중에서 전면에 생기 모양의 기구를 장착한 미국 탱크에 의해 생매장을 당한 이라크 군인은 몇 명인가?
답: 6천 명
19. 걸프전이 끝난 후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남겨진 일화우라늄탄은 몇 톤에 이르는가?
답: 40톤
20. UN에 따르면 1991년에서 1994년 사이 이라크에서 암 발생률은 얼마나 증가하였나?
답: 700%
21. 1991년 미국이 파괴했다고 주장한 이라크 군 전력은 얼마인가?
답: 80%
22. 이라크가 자신이 가진 무기를 전쟁역지와 정당방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는가?
답: 없다.
23. 지금 이라크가 10년 전에 비해 세계평화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가?
답: 아니오
24. 2002년과 2003년에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 목숨을 잃게 될 민간인 숫자는 펜타곤이 예측한 바로는 몇 명인가?
답: 만 명
25. 이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답: 50%가 넘는다.

26. 미국은 이라크에서 몇 년 동안 공중폭격을 하고 있는가?
답: 11년
27. 미국과 영국이 1998년 12월부터 1999년 9월 사이에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가?
답: 아니오
28. 1998년 12월부터 1999년 9월 사이에 이라크에 투하된 포탄의 양은 얼마인가?
답: 2천만 파운드
29. 이라크의 수출과 수입을 철저히 제재하는 UN 결의안 661이 도입된 것은 몇 년 전인가?
답: 12년 전
30. 1989년 이라크에서 천 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사망하는 아이는 몇 명이었는가?
답: 38명
31. 1999년 이라크에서 신생아 천 명 당 사망하는 아이는 몇 명으로 추산되는가?
답: 131명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 345%가 증가한 것이다)
32. UN 경제제재의 결과 1999년 10월까지 목숨을 잃은 이라크인들의 숫자는 몇 명으로 추산되는가?
답: 백오십만 명
33. 1997년 이래 경제제재 조치로 죽어간 이라크 어린이는 몇 명으로 추산되는가?
답: 칠십오만 명
34. 사담 후세인은 무기사찰단을 이라크 밖으로 내쫓았는가?
답: 아니오
35. 1998년 11월과 12월에 이라크에서 무기사찰이 이뤄진 것은 몇 번인가?
답: 300번
36. 이 중 문제가 된 무기사찰은 모두 몇 번인가?
답: 5번
37. 무기사찰단은 이라크의 바아트 당(Ba'ath Party) 본부에 진입이 허용되었는가?
답: 예
38. 1998년 12월에 "이라크는 실제로 현대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장해제되었다."고 말한 이는 누구인가?
답: 스콧 리터 Scott Ritter, UN 특별위원회(UNSCOM) 단장

39. 1991년 이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제조 능력은 1998년 UN 무기사찰단이 조사한 결과 얼마나 발견되어 철회되었는가?

답: 90%

40. 이라크는 무기사찰단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할 의지가 있는가?

답: 그렇다

41. 1992년까지 이스라엘이 위반한 UN 결의안은 몇 개인가?

답: 65개 이상

42. 1972년부터 1990년 사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스라엘에 대한 UN 결의안은 몇 개인가?

답: 30개 이상

44.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국가는 몇 개인가?

답: 8

45. 이라크가 갖고 있는 핵탄두는 몇 개인가?

답: 없다.

46.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몇 개인가?

답: 만 개 이상

47. 핵무기를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는 어디인가?

답: 미국

48.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탄두는 몇 개인가?

답: 400개 이상

50. "우리가 중요한 일에 대해 침묵을 시키는 날 우리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라고 말한 이는 누구인가?

답: 마틴 루터 킹 목사

출처: 우리는 평화를 꿈꿔요(cafe.daum.net/neverwar)

특·별·인·터·뷰

여성부 김애량 여성정책실장

편집부 정리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러 단체들이 제각각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또한 두 번의 운영위 회의와 정회원을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관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이관논의 과정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기존 보육사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부서 이관이 결정된 점등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절차상 비민주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발전을 위한 아무리 좋은 대안도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적한 보육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쟁점들이 풍부하게 논의되고 보육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문제는 이제 부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정책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주무부서로 이야기되고 있는 여성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본 인터뷰는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논의 일지

•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산을 감소, 이혼율 증대, 노인인구 비중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보육지원과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업무이관을 제안, 노무현 대통령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추진 지시.

• 5월 7일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시기를 놓고 즉시 이관해 달라는 여성부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맞서 있다고 보고하고, 권 수석은 검토 결과 조기이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달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여성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5월 12일 여성부 '아동, 여성,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선진형 보육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골자로 한 보육사업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



여성정책실장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먼저 여성부와 여성정책실의 담당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참여정부 여성정책의 모토가 "여성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성부는 바로 이를 위해 우리사회 남녀차별을 개선하고, 사장되고 있는 여성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활용의 방안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며,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예방과 직장내 남녀차별 개선 등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합니다.

여성정책실은 여성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자리로서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업무와 가족정책 수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정책관으로 일하시면서 보육문제도 담당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문제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부모들이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어서' 라는 대답이 79%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육의 80% 가량을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상한선이 정해진 보육료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시설 재투자나 보육의 질 개선에 힘을 쏟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 보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어촌지역, 영아, 장애아 등 특수한 보육수요가 있는 곳에 국공립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질 좋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 환경만큼이나 직접 아이들을 대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보육업무가 이관되면, 여성부의 최우선 정책으로써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의 전략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예산을 증액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여성으로,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육정책이 가족지원 정책, 양성평등정책, 아동복지정책과 연계해서 통합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여쭙 보겠습니다.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동복지서비스 영역의 확대가 필요한데 여성부에서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성부의 계획은?

지금 보육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수요자 관점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볼 때 여성이 보육정책의 수요자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의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여성부가 보육수요자인 여성과 아동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서 정책결정하고 실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성부는 보육마스터플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성부는 신생부서인데 보육전달체계의 문제나 행정력 부족의 문제는 없는지?

보육업무가 이관 되면 인원도 보충될 것이며, 여성부는 보육업무를 주력할 수 있도록 직제도 개편하여 행정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업무와 보육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고 저의 경험상 실제 서비스 전달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보육이 일하는 여성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곳에서 근무하는 기존 보육교사는 육아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의 사용이나 장시간 근무와 진업으로 인한 육아시간의 부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교사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보육문제에 있어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보육교사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적인 과제로서 저임금과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재교육 기회 확대 등 교사 능력 향상, 그 외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지원 등 모성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양성평등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성평등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보육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여성부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영유아기에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지배합니다. 요즘에도 어린이집

에서 역할놀이를 하면서 여자아이에게는 간호사를, 남자아이에게는 의사를 하게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고, 특히 보육교사가 무심히 하는 행동이나 한 마디 말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육교사의 양성평등적인 사고와 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영유아 보육에서부터 양성평등한 교재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육교사들이 양성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6월에 개원될 여성부 산하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소외받아 온 보육교사들과 어떻게 만나 나갈 계획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전국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많은 보육시설 관계자와 보육교사들을 만났고, 여러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자주 실제 보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만나 보육의 중요한 주체인 부모와 보육교사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바쁜 와중에도 서면이나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애랑 여성정책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3월이 오면 습관처럼 추모제를 지내왔다.

그러나 근 2년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추모제를 하지 못하고 이제야 열 번째 추모제를 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치루는 행사라 좀 힘들고 어설했던 것 같다.

세쌍둥이란 별난 이름을 가진 어린이집에서 10년을 보내면서 항상 세쌍둥이 대식이, 재식이, 강식이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나에게서는 커다란 무게로 다가왔다.

관자촌에서 불길에 휩싸여 절규하며 사라져간 그들은 세상을 원망했을까?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세상을 향해 한을 품고 연기 속으로 사라졌을까? 아니면 미련 없이 하늘로 갔을까?

항상 그들 세쌍둥이를 기리는 어린이집은 다른 곳과 달라야 한다는 무게감 속에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늘 부족하고 모자라서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같다.

그 죄스러움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번 열 번째 추모제는 이전식과 함께 치렀는데 행사 프로그램 중 추모굿이 있었다.

추모굿을 추는 분은 어린이집 자모였고, 며칠동안 몸이 아파서 도저히 춤을 출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춤을 추는 도중에도 몸이 땅으로 꺼져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춤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몸이 살아나 굿이 끝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쳤다. 나도 몸이 계속 안 좋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행사 당일에는 거의 추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춤을 추신 분의 말을 빌리자면 아이들이 다녀갔다는 것이다.

정말 세쌍둥이가 다녀갔을까?

10년을 일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나를 항상 일으켜 세워준 것은 세쌍둥이었다.

그들이 늘 3월이 되면 내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것 같다. 어린이집이 마치 나의 일부인 것처럼 고집스러운 만치 부여잡고 있었던 건 내가 아니라 세 쌍둥이가 아닐까?

이제는 놓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러기엔 쓸데없는 미련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우리 세쌍둥이 어린이집 아이들 세상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남은 열정을 쏟아야 할 것 같다.

내가 참 보육교사회와 인연을 맺은 건... 정수형이 술 한 잔 하자며 불러서 멋모르고 따라간 곳이 보육교사회였습니다.

참 인연이 되려면 어떻게든 된다고 누군가가 그랬던가요... 생각해보면 나도 참!!! 회원 카드 쓰라길래 읽어보지도 않고 냅다 그냥 썼습니다. 쓰면 다 좋은 건줄로만 알았거든요... 참 오해 없으시길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답니다.

보육교사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신입회원 교육이라길래 참 부담스럽고 설렌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보슬비가 짙게 내리던 날 나와 몇몇의 신입 회원들은 씩씩이 어린이집에서 신입회원교육을 받았습니다.

연혁이 이러쿵... 조직이 이러쿵... 교사가 이러쿵... 매번 듣던 말들이었는데 참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흥미를 끌기엔 충분했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교육부장님의 후배 사랑 프로젝트는 아직도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신입회원 교육을 받기까지 6개월... 참 짧은 시간동안 난 많이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알아나가는 게 즐거웠고,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가는 게 나에게겐 너무 행복이었습니다.

또 신입회원 교육을 받는 동안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보람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볼 수도 있었고, 현재 나의 교사 생활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구요,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막 신입 딱지를 댄 새내기 회원이지만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 날 기억하며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날 신입회원 교육은 끝이 났답니다.

앞으로 내가 딱지를 댄 오늘을 항상 기억하며 처음 내가 가졌던 마음을 잊지 않는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후배 종문 올림.....

첫수로 따지자면 10년이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내 결혼식때 축하를 불러주던 녀석들이 중고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는 내가 풀지 못하는 것이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 보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를 잘 돌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갈증이었고 나는 그 갈증을 풀어버리지 못했다.

아마도 내 출발이 운동차원에서 이 보육의 일을 시작했다면 이런 해마다 거듭되는 고민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본다(운동차원에서 이 일을 한 사람들을 뛰하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직업으로만 보았다 하더라도 이런 풀어버리지 못할 고민에 쌓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내 출발은 그랬다.

아마도 수원에서 있었던 확대간부수련회때 돌봄에 대한 단어를 들었을 때 평생의 화두로 삼지는 못해도 향후 몇 년간의 화두로 삼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내게 제의가 들어왔다.

같이 공부하자고, 아마도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알았나 보다. 고맙구려.

이라크의 아이든, 미국의 아이든

부유층의 아이든, 빈민층의 아이든..

생명은 다 똑같다.

아니 오히려 근본적인 생명은 같다 하더라도 저마다 처한 것이 달라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기억 속에 평생의 은인으로, 평생의 스승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유년기에 혹은 청년기에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정체성에 혼란을 빚고 있을 때 많은 돌봄을 받았던 이들을 대부분 기억하고 만나보고 싶어한다.

내가 받은 돌봄에 대한 교육을 지부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나도 고민이다.

돌봄은 이후 내 인생에 있어서의 아마도 중요한 갈림길이나 결정이 될 거라고 믿는다.

화장실에 걸려있는 어린이 권리 선언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본다.

'당신의 자리가 참으로 좁습니다'라는 누군지도 모르는 시는 가슴에 와 닿으면서도 나는 아이들에게 어린이 권리선언문처럼 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해본다.

잠을 안 자려고 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매일 1시간 넘게 밥을 먹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늘 낯설어 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부모와 협조가 안 되는 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애아동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내 아이는 내가 잘 돌보고 있는지.

내 주위 사람들은 잘 돌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다

올해는 돌봄에 대해 나누어주기 전에 스스로 나가 나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기적인 생각 일까요.



선생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윤진숙 · 경기도을논이방



너무도 오랜 시간 속에 간직했던 기억들을 주머니 속에서 하나둘 꺼내려고 하니 하나의 기억들이 그림처럼 희미하게 그려집니다.

처음 교사로서 발을 딛고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이후 지탁연)라는 단체, 지탁연 소속 어린이집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젊은 선생님들의 열의 속에서 운영하는 가난한 어린이집이 대부분이었던 시절..

나 역시 예외 아닌 이웃과 함께 하는 첫 출발지인 구로동 00어린이집에서 나의 교사생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지는 않는 듯 출발선 자체가 나의 교사생활은 이렇게 시작됐고, 하루의 일과 역시 왜 그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365일이 마치 10년을 산 것처럼 흘러가는 하루의 생활들.

더구나 교사로서의 나이가 '노처녀'라는 늙은 나이로 시작한 나의 교사생활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늙은 체력이 뒤따라 주질 않는다는 것.

그 당시 교사의 역할은 교육, 주방, 부모회의, 자원봉사자 관리, 지역활동 및 그 외 운영에서 한 부분 재정(수익사업)까지도 책임을 안고 가는 어려운 일들.....

휴일도 없이 수익사업을 하느라 헌옷바자회, 동대문시장에서 이월재고품 팔기 안 해 본 장사 없 이 해온 지난 일들...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그 시대 그 아픔들 각기 나름대로의 가정들 사업의 실패로 또는 실적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 이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신의 소중함을 함께 가고자 일구어내는 과정 속에서의 진실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했던 시간들.

그 아이들 삶은 곧 우리 삶이라고 생각했던 교사들.

곧 그일 자체가 교사인 나의 삶 일부분으로 일이 스며들었을 때 교사로서는 벅찬 일이 아니라 삶이며 생활이 되어버린 채 지금의 나로 다시금 보육현장에 있게 했던 힘이 아닌가 싶네요.

서울 아난 경기지역에서 나의 조그만 일터에서 또다시 '지탁연' 이 아닌 '보육교사회' 인연이란

단어 속에서 조금은 시대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듯.

잠시 보육 현장에서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지탁연'에서 '보육교사'라는 단어는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래도 2003년 경기지역에서 총회가 있었던 날은 나의 가슴은 조금 설레었습니다.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유일하게 몇 사람 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가슴 뿌듯하고 생동감이 있어 좋았고, 젊은 선생님들을 보니 밝은 미래가 보이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이권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나는 이런 장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서 이런 맛을 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사람냄새 나면서 제 목소리 내면서 고민을 토해내고 서로의 정을 나누면서 가는 만남.

너나없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대한 우리네 인심들은 온데간데 없이 뚝 끊겨버린 지금의 우리 현실 속에서 작은 촛불하나 들고 많은 빛을 내고 있는 지금의 '보육교사회'라는 단체.

비록 보육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아마도 교사분들은 이런 툭툭한 백을 두고 있어서 행복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 달에 한 번 월례회의때 저희 지역에 지회장님께서 모임시간과 장소를 전화로 연락을 받을 때는 오래 전 일었던 것을 찾은 듯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보육교사 회원이 있기에 아직 보육이라는 단어는 낯설게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요.

신입교사인 저는 사실대 후반이에요.

선생님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게 빨리빨리....

지금이라도 천천히 갑시다.

이 길은 멀고 긴 길이지만, 결코 소모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

인생에서 값지고 멋진 선물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네요.

보육의 일은 힘이 들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디에서 누구한테라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 교사들만 느낄 수 있는 천진스러운 아이들의 웃음과 기쁨이 있다는 거.

그 느낌 그대로 간직함과 함께 긴 길이지만 '보육교사회'라는 울타리와 벗 삼아 보육교사 회원 여러분 화이팅!

하지만 지탁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의 참여에서 무엇인가 밑바닥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해후소' 같은 몫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육현장에서 아이를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인물탐방기

최현숙 · 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 명예회원

위풍당당한 그녀 최선희를 만났습니다.



원고 마감일이 되어서야 그녀를 만났다. 코감기, 몸살감기 때문에 전화인터뷰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녀를 만날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부랴부랴 상경했다.

상경? 말 서울 5년째, 나는 그동안 학교 밖 다른 세상과는 거의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고 또 기억조차 일부러 억제하고 있다. 지금의 일에 집중하고 충실하고 싶기 때문이다. 과거는 거름처럼 삭혀져야 생생한 실제로 남아 있던 자부심만 부추긴다면 그때나 지금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여겨진다. 그러나 나는 기막히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행운에 대해 늘 감사하고 있다. 당시로는 당연한(?) 것 같았는데 더 살아보니 그건 말 그대로 행운이었다.

1970년대 말, 80년대 초 보육 황무지를 개척하던 많은 선배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정리하여 터를 닦고 집을 세운 대표적 인물은 바로 최선희이다. 나는 다된 건물에 미장하고 장판 까는 역할과 이어서 재건축 청사진을 만들면서 역할을 마감한 셈이다. 그녀는 멋진 나의 선배였고 또 소중한 조력자였다.

살아있는 눈빛과 통쾌한 웃음소리를 가진 그녀는 언제나 당당한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생소하기만 하던 시절, 그녀는 언제나 거침없이 능수능란하게 상황을 대처해 갔었다. 나섬과 비켜섬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던 사람, 그건 강한 열정과 동시에 사욕 없음을 지녔기에 가능한 처사였을 것이다. 지탁연 활동 이후 나는 그런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일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덕목을 갖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행운이었다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때 지탁연 수익사업이었던 방앗간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말수가 줄어들고 다소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마도 시대의 변화, 그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성찰해 나가는 진지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삶의 깊이가 더해 가는 시간들인 것 같다. 나는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주 가끔 그런 그녀를 지켜볼 따름이었다. 끊임없이 땀과 부수는 상념 속에서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가진 그녀를 존중한다.

이대 부설 마포자활후견기관에서 2년 동안 자활 업무를 담당한 후, 현재 그녀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 역시 몸살감기에 걸려 특유의 말썽씨(상대방을 험나게 하는)가 충분히 발휘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열심히 그리고 이전에 비해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일하는 것을 가능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보니 이전에는 단짝 동료였지만 지금은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에서 서로 만난 셈이다. 어쩌 보면 무궁무진한 토론거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으나 교육의 숲을 보는 학부모와 대안 학교라는 나무를 보는 교사 사이에서 절제된 대화만 나누었다. 단답형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왜 보육교사를 그만 두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우리 둘 다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보육 초창기에는 우리의 할 일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별로인 교사들이 평생 보육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좋은 교사 이름을 열거하면서 부러워했다. 이명숙! 양은희! 남미영!

아이들이 참으로 잘 자라주었다.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옷에 맞는 신발이 보이지 않아서 어린이집 가기를 거부하던 아람이, 기저귀 찬 주체에 밟상 위 소주 한 잔을 꿀꺽 마시고도 까딱 없던 상희, 이제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으로 훌쩍 커 있었다. 학부모회 회원 자녀답게 학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들은 자기 색깔을 갖고 밝게 웃고 있었다.

여전히 부담스런 서울 운전인지라 어찌 어찌 하다보니 그만 애들 선물도 못 주고 오히려 풍성한 식사대접만 받고 돌아왔다. 전에는 인터뷰 당하느라고, 이번엔 인터뷰하느라고 대접만 받았으니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담방 그 이후' 화성 가족낚시를 꼭 오라고 당부하며 돌아왔다.

선화야! 매항리 앞 바다의 조개구이가 너를 부른다. 한여름 전에 꼭 오거라.

좋은 그림책 소개

뭐하니?

김영수 · 부산지부 그림책소모임

둘째개어린이 | 기획 유문조 | 그림 최민오 | 5,500원 | 아기 그림책



보육교사를 하면서도 그림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보육교사 5년차가 되면서 글쓰기 공부를 하면서이다. 그전에는 '좋은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은 거겠지'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금 뭐 그림책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이나 소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좋은 그림책은 좋은 장난감 그 이상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많이 보여줘야겠다는 생각과 지금 막 13개월을 들어서는 우리 아들에게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려는 노력 정도 그게 전부다.

아들이 어리다 보니 함께 서점을 가기도 나 혼자 어린이 책 전문서점에 들어 이 책 저 책 보다 적당한 것을 골라 사오곤 했는데, 한번은 내 뒤편에는 좋은 그림책이라고 사와 뿌듯한 맘에 책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막 넘기려고 하더니 책을 찢어버리는 거였다. 어린이집에서도 술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우리 아들이 내가 사온 책을 그렇게 찢어버리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땐 이왕이면 책장이 두껍게 된 것으로 골랐다. 그 중에서 눈에 띈 것이 '뭐하니?'였다.

일단 그림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서 깨끗한 것이 환하게 눈에 들어왔다. 첫 번째 책장을 넘기면 곰돌이가 뒤돌아 앉아 있다. '곰돌아 뭐하니?' 라고 하면 그 다음 장에서 곰돌이가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글자는 없다. 그리고 원숭이, 코끼리, 멧돼지, 고슴도치, 아기가 차례로 뒷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 장에서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먹는 것도 엉망,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엉망, 노는 것도 모두 엉망인 모양새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새다. 마지막 아기가 나올 때는 아기 대신 아들의 이름을 넣어 '홍빈아 홍빈아 뭐하니?' 한 다음에 다음 장에서 '까꿍-' 한 마디면 우리 아들은 함박 웃음을 지으면 너무 좋아한다. 어쩌면 그 '까꿍' 한마디를 기다리기 위해 곰돌이, 원숭이, 코끼리, 멧돼지, 고슴도치가 나오는 장면들을 모두 그렇게 암전(?)하게 잘 봐준 것이 아닌가 할 생각이 들 정도다.

어쨌든 이 책은 다 보고 나서 아이가 찢을까 봐 만지는 것을 노심초사하는 맘으로 지켜봐야 하는 걱정이 없어 좋고, 더욱 좋은 것은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다. 영아반 선생님들에게 반가운 책이 될 것 같다.



세쌍둥이어린이집 아이들의 이야기

이경미 · 인천 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

01 띠꾸는 창현이형

선생님과 아이들이 계양산에 올라 갔다 띠꾸를 만났다. 띠꾸는 커피 파는 아저씨 강아지 이름이다.

신나게 띠꾸와 놀다가,

재곤(7살): 선생님 띠꾸 몇살이에요

선생님: 모르겠는데, 아저씨께 여쭙봐.

아저씨: 7년 됐어

재 곤: 7살이네.

아이들: 와- 와. 띠꾸 7살이래.

준일(7살): (옆에 있는 6살 창현이에게) 야! 너 띠꾸 형이라고 해!

02 기분 안 좋은데

한가로운 날 심심하던 민섭이가(4살)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하연이(5살) 앞에서 얼렁거리며

민 섭: 나 잡아 봐라- 나 잡아 봐라-

하 연: 나 기분 안 좋아. 너 잡히면 죽어.

03 너무 민망해 하지는 말아요

7세들이 카네이션을 접으며 자기들끼리

재 곤: 야. 나는 푸른 마을 유치원에 다니고 싶어(이전에 다니던 곳). 웬줄 알아? 2시에 끝나니까!

(선생님도 옆에 있는 것을 의식했는지 선생님을 향해) 선생님. 그렇다고 너무 민망해 하지는 마세요.

선생님: (웬 민망.....)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봐요!

서주희 · 서울, 방아골어린이집 교사

매일 점심식사 후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일알림장 알림란이란 걸 쓰는 것이지요.

그 아이가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은 어떤 특별한 활동을 했는지... 이런저런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 써서 부모님께 알려 드리는 수첩인데, 칸이 그리 넓진 않지만 원가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그 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마치고 알림란을 쓰려고 잠시 오전동안 지냈던 일들을 되짚어 보며 생각에 잠기려는데, 주말을 쉬고 와서 그런지 몸도 개운칠 않고... 잠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식사 후에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럼 안 돼...' 하면서 몸을 이리저리 꼬아도 보고 머리도 흔들어 보고, 어깨도 주물러 보고... 한동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살면서 다가와서는 썩 웃으며, "선생님! 안마해드릴게요!" 하며 주먹으로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선생님 어때요? 시원하지요?

교사: 어- 정말 시원해... 너무 좋아... (@@;눈물글썩)

아이: (안마하는 방법을 달리 하며)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는요...??

(확인을 받고 싶은지 계속 물어가며 안마를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위를 살피며) 야, ○○야 이리와 봐! 너도 이렇게 해봐!

(어떤 아이 한 명이 놀이를 하지 않고 교실을 땀도는 걸 보고는 부르더니 자기와 같이 안마를 해보라고 시킨다.)

아이2: 어떻게?? 이렇게??

아이: 응 그렇게... 그러구 이렇게두 해봐!

(어깨에서 등, 목, 이제는 다리까지 두드리며 서로 의견도 나누며 어머니고 묻기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뒤늦게 왔던 아이는 어느새 블랙영역으로 가서 놀이를 시작하고 있다...)

교사: 음 이제 그만 하자! 너도 놀아야지... 너무 시원해... 지해야 고마워-

주먹으로 두드리주기도 했다가 조그만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 주기도 했다가, 어디서 배웠는지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두드리는 고난이도 안마까지... 몸집은 작는데 손의 힘은 어찌나 좋은지 아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원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 놀이에 바빠 선생님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어느 누구도 날 신경 써서 지켜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이 아인 계속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나한테 그게 필요했던 걸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

'난 아무 도움도 구하질 않았는데 이 아인 자기 의지로 안마를 해주겠다고 나선 것인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건 나인데... 도리어 제가 이런 도움을 받게 되니... 정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원하게 안마를 받은 뒤 멍하게 '지해야 고마워-' 라고 말했는데, 맘속으론 왠지 미안했었던...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태중일기(1) - 나이 마흔에 너를 만나다!!!-

주로미 · 본회 명예회원

오래 전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원으로 활동했을 때 애 하나만 더 있으면 육아일기는 내가 맡아놓고 쓸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다. 그리고 잊혀진 채 세월이 흘렀다. 그때 객기로 한 말을 미해가 기억해내고 전화를 해왔다. "언니! 이젠 육아일기 써야지?"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때 그 말을 책임지게 되었다. 지독한 것 같으니라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든 건 왜일까?

작년 3월 9일에 우리 가족은 진주에서의 1년간 생활을 과감히 접고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왔다. 1년 동안 작고 깨끗한 그 도시에서 상구(7살 아들)와 우린 여유롭게(?) 보냈다. 최소한 겉으로 보기엔 그랬었다. 그러나 남편과 내게는 고통스런 생활이었다. 부작용자의 외로움은 자기비하가 되었고 그런 마음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게 했다. 애써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돌려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 했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필 나이 마흔에 그것도 이렇게 힘들 때 그도 모자라 새로운 변화를 주려할 때 말이다. 몇 년 전 우린 둘째 아이를 가져 보려고 애썼었다. 애썼지만 안되었고 시간이 흐르자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럴 때 임신이라니. 우린 반가운 마음보다 우울한 마음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진 않았다.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많은 시간들을 피해 이 힘든 시기에 우리 가족으로 오게 된 아가에게 감사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온 게 분명했다. 우스개 소리로 주변사람들이 "너들은 진주에서 애만 만들어 왔냐?"고 그린다. 그렇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진주에서 얻어왔다. 나이 마흔에.

2002년 1월 30일 수요일 맑음-임신 9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진주 남강을 보며 우리 아가에게 편지를 쓴다. 진주 성곽에 기대에 너를 생각한다. 앙상한 나뭇가지만 계절을 알려줄 뿐 그다지 겨울답지 않은 날씨다. 쪽 걸어들어오면서 나무 위에 등지를 쓴 새집들을 보다가 작은 소리에 이끌려 나무 위를 눈으로 뒤적거리고 있었다. 소리를 쫓다 우연히 쳐다보게 된 나뭇가지들이 하늘 가득 펼쳐져 있다. 그저 앙상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세상이 엄마의 시선에 들어온 것이다. 시선의 각도에 따라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엄마를 놀라게 한다. 보이는 것을 쫓고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되는 우리의 알팍한 편견에 일침을 가하는구나. 저 나뭇가지가 말이야. 우리 아가는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지 않도록 해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싹트고 자라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어제는 들꽃어린이집 선생님들과 보배동이 선생님들과 참새 선생님 댁에서 저녁을 먹었다. 맛있는 잡채와 시금치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 나중에 엄마의 임신사실을 알렸는데 모두들 너무 좋아했다. 부러워하기도 말아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자라나게 될 우리 아가는 행복한 아이구나.

논개사당까지 쭉 걸어왔다. 논개의 초상화를 보니 신비로움이 느껴진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숙여지고 그분께 기도를 드렸단다. 되돌아 나오는데 왜 눈물이 펴 도는 건지. 엄마를 선택해준 우리 아가가 너무 고마워서 잠시 흥분이 되었다. 찬 공기가 상쾌하다. 햇볕 좋은 벤치에 앉아 너를 생각하며.

2002년 2월 6일 수요일 맑음-임신 10주

나무에 작은 꽃봉오리가 터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맺혀있다. 새들의 소리가 유난스럽다. 겨우내 언 땅을 조심스럽게 뚫고 나온 어린 싹도 보인다. 진주가 따뜻한 남쪽임이 분명하다. 아직 설도 안 지났는데 봄기운을 느끼다니... 아침 산책은 정말 기분 좋게 한다. 진주에 내려와서 요즘처럼 진주성에 흠뻑 빠져보긴 처음인 듯 싶다. 서울을 떠나 작은 도시에서 잘 살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구나. 이런 도시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면 얼마나 좋을까? 허나 그도 스스로 찾고 즐길 수 있어야 가능하겠지. 얼마 있으면 우리 식구는 다시 서울로 가게 될 거야. 1년 만이지. 1년 전엔 참 꿈도 많고 자연 속에서 너희들과 소박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양이야.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좌절을 딛고 이곳을 뜨기로 했을 땐 힘들기만 하고, 진주라는 도시가 싫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

빨리 이곳을 잡고 서울행을 결심한대는 우리 아가의 영향이 제일 컸단다. 그건 참 오묘한 순간이었단다. 우리 아가와 만남은 여러 갈등을 단숨에 단순하게 결정 내리게 된 중요한 계기였거든. 설렘과 기쁨과 동시에 무언가 접고 뒤로 미루어야 하는 아쉬움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단다. 그러나 지금은 아쉬움은 없단다. 먼 미래로 미루기로 했거든. 서울에서 다시 자리 잡으려면 어려움이 많겠지. 아빠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테고. 허나 우리 가족은 잘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 아가는 튼튼 씩씩 건강하기만 하면 된단다.

2002년 3월 5일 화요일 봄비가 축축히 내림-임신 14주 3일

새벽부터 봄비가 축축히 내렸단다. 계속되는 가뭄에 농사짓는 분들의 마음을 안타게 하더니 오늘 해갈이 됐을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서울 갈 준비를 한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 아빠와 상구형은 축구게임을 하고 있단다. 참! 우리 아가가 조금은 햇갈릴 수도 있는 호칭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구나. 아가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기에 상대의 성에 따라 호칭

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엄마도 우리 아가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궁금하지만 그보다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엄마의 나이가 많다보니 걱정이 많이 된다. 엄마가 초기에 임신 사실을 모르고 힘겨운 일도 많이 했었고 연말에 음주가무도 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기다 그 추운 날 1월 1일 해맞이를 위해 남해 금산에서 몇 시간을 떨었던 일이며, 결국 산에 오르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다시피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생리하듯 피도 비쳤었는데 그런 힘든 시간을 견뎌낸 우리 아가의 인내와 생명의 소중함에 감사하게 된다. 넌 우리 가족에게 꼭 와야 할 아이였던 게 분명하다. 참 고마운 일이다. 이제 입덧도 다 끝났고 기분도 상쾌하지만 우리 아가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듯하다.

엄마는 요즘 '간디 자서전'을 읽고 있단다. 네루의 '세계사 편력'을 읽으면서 간디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삶이 궁금해졌단다. 교과서에서만 배운 단편적인 지식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이 이 늦은 나이에 전해질 것 같구나. 너도 함께 감동에 젖어보렴. 태내에 아이가 있으면 태교라고 해서 말과 행동은 물론 생각도 좋은 것만을 가려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엄마가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도 많았었고, 다른 사람을 원망도 많이 했단다. 좋은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생각과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우리 아가에게 미안하구나. 그러나 어찌겠니.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 걸... 이런 엄마의 감정과 생활을 우리 아가는 개의치 말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단다.

사랑하는 아가야!

갈증을 해결해주는 저 봄비처럼 우리의 삶에 축축한 단비로 와준 우리 아가야! 오늘 잘 자렴. 엄마와 아빠 상구형님은 우리 아가와 함께 있단다. 늘-

2002년 3월 9일 토요일 맑음 - 임신 16주

드디어 서울행이다. 피곤하다.

면목동에 도착해 가족들의 환영에 정신 없이 보내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가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태동이다. 작게 엄마의 배를 두드리는 아가의 몸짓이 신비롭고 감동적이다. 아빠를 불러 너의 움직임의 신호를 느끼게 해주었다. 피곤이 사라지는구나. 아가야 피곤했지. 얼른 쉬거라. 이제부터 서울에서 살 거란다. 엄마는 만 1년만에 서울에 다시 오게 되었다. 작년 3월10일 전주로 갔으니 말이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예상치 않은 일이라 걱정만 시름만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본 이 사진으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2002.1.12
전주에서 다시 서울행을 결심하게 만든 사진.

아이들이 무얼 보는가

이선미 · 본회 정책위원장

5월에는 특별히 빨간 날이 많습니다. 보육교사는 별 혜택을 못 보는 노동절, 보육교사에게는 일이 많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보육교사는 선생의 절반 정도로 생각하는 스승의 날,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까지. 5월은 가정의 달을 외치며 어린이와 가정, 교육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권리 주장과 다양한 이해로 복잡한 달이기도 합니다.

15일 스승의 날에 되돌아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로 불거진 교육계의 대립이 급기야 전국이래 최초로 '교장 쫓기 대회'가 열리고, 다른 쪽에서는 교장 선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마음에 남는 것은 문제의 교사로 지목된 어느 여교사입니다. 지금 아이들 곁을 떠나 스승의 날을 보낼 그 교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예부터 '제자는 스승의 발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스승의 권위가 아이들 앞에서 제대로 서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 같은 교장선생님께 차 심부름도 하지 않고, 어른을 대접 할 줄도 모르는 막 나가는 막내 여교사는 스승의 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론을 통해 근 한달 이상 표출되는 자살을 둘러싼 이러한 일각의 보도는 처음의 시작과 문제를 벗어나 그야말로 막 나가는 언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보며 바로 보지 못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것인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가부장제 문화, 저절로 세워지는 권위가 아닌 스스로 우기는 권위적인 행태 속에,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진 막내 여교사의 심정이 어마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교사의 업무 속에서, 단 하나 아이들을 만나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만이라도 지켜졌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또한 관행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조그마한 이탈도 허용치 않는 경직된 풍토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아 불행으로 치달아 참담한 선택을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사의 수업권이 무너지며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부분이 위험천만한 일이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러한 수직적인 문화와 힘의 논리가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의식의 저편

권위적 문화와 아이들

에 스며들어 또 다른 불행을 만들 씨앗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간제 교사, 즉 비정규직 교사에 심지어 여성이 자신의 교권에 대해 감히 말할 수 없는 지금의 교단이, 고스란히 지금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됩니다. 건강한 교육이 되려면 그 문화가 세대간, 집단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민주적인 풍토가 마련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일 것입니다. 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보육이 되려면 자신의 자리가 맑아야 합니다. 세대간 차이, 권위적인 관행이 세대를 넘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라크에만 평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스의 전파만이 공포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곳곳에 서로를 인정하고 차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몸짓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기를 함께 하는 우리 보육교사들의 자리도 밝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는 것이 아이들의 자리가 됩니다.

내 마음에 찍어놓은 그곳, 인도

김숙자 · 서울지부 회원

어느 날 보육교사회 회원목소리에 NGO 활동가들을 위한 인도 연수 신청을 받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귀농을 하겠다는 나에게 생태 공동체 탐방이라는 제목은 참 매력적임에도 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이 그냥 읽기만 했다. 다음 날 전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경이가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신청하라고 하더라고... 추천서도 써주겠다고. 서울여성노동자회와 한국보육교사회의 추천서를 받아 신청을 했다. 그러곤 발표가 있던 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확인을 했더니 1차 명단에 나의 이름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과는 너무나 다른 인도의 공항. 하지만 나의 첫 느낌은 참 편안했다. 전생에 인도에 살았나보다. 주변을 뚫어보는 모기도 움직임이 느려 손에 닿고, 비스에 올라서는 순간 기사 아저씨가 걸어주는 꽃목걸이(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생화로 만들었고, 거의 매일 호텔이 바뀌기에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 그리고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는 인도인 가이드 생. 이렇게 인도는 나에게 천천히, 온온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2시가 넘어서야(인도는 한국보다 3시간 30분이 느리기에 새벽) 잠이 들었는데도 6시에 일어난 나. 역시 난 밖에서만(?) 부지런한가보다. 평상시에도 그럴 수 있을 얼마나 좋을까! 관광 버스를 타고 아그라로 이동하는데 차창 밖의 풍경은 날 긴장시켰다. 신호등도 없는 길에서 차와 렉사, 소들 그리고 아무데서나 길을 건너는 사람들... 서울의 버스처럼 빨리 달리진 않아도 무질서하게 보이는 상황들이.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나의 걱정은 사라졌다. 한번도 급정거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곳엔 어떤 질서가 있는 걸까? 그걸 느껴보고 싶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에 차 안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새삼스레 그 시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다. 이름, 성별, 결혼유무, 하는 일, 생각. 이게 난가?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느낌. 그 동안 일과 관련된 고민은 많이 했다고 생각되지만 정작 어느 순간부터 난 나에게 대한 생각은 잊고 살았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곤 인도를 다니는 내내 나에게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자전거를 이용한 사이클 렉사를 타면서는 젊은(?) 렉사왕라를 찾았는데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한 감정을 가지려했던 나의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타지마할

과 아그라성을 관광하면서는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 때문에 꽤나 긴장하며 다녔다. 물건을 사라는데 안 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이리 힘든지... 결국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 나왔다.

역시 난 인생의 삶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인가 보다. 간디 아쉬람 어린이 교육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다. 하얀 옷을 입고 줄 맞춰 앉아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졸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깨우려 다니는 선생님들을 보며 안타깝긴 했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한두에배때 아이들의 노래 소리는 아주 아름다웠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사진을 찍어 달라며 포즈를 취하는 모습도...

간디 선생님이 암살 당한 장소 그리고 화장한 곳, 기념관. 인도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읽기 시작한 간디 평전 때문인지 낯설지 않았던 사진과 이야기들. 기념관에서 본 TRUTH IS GOD 그리고 MY LIFE IS MY MESSAGE이란 글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십여 년 간 해왔던 일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나에게 이 글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

펜나이로 향하는 비행기안에서도 나에게 대한 생각은 계속되었다.(고소공포증이 있는 나로선 이번 인도 연수가 아주 힘들거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5번을, 수정된 계획에 의해 4번을 타야 했으니까...) 무엇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땅에 대한 나의 집착인가? 버스나 기차보다 오히려 더 움직임이 없는데 왜 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긴장하고 있는 몸이 느껴진다. 마음은 놓아버리자고 하는데 몸이 계속 잡고 있다. 왜 잡고 있나? 남들은 편히 자고 있는데 난 왜 잠들 수 없지?

펜나이에서는 NGO 활동가들과 만남을 갖고 도시 빈민 공동체와 농촌 공동체를 방문했는데 도시빈민 농촌에서의 사람들이 더욱 건강하게 느껴졌다. 물론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행복해 보이기는 했지만... 많이 가졌다는 것과 행복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느 나라이건 마찬가지인가보다. 그곳에서도 아이들과의 만남이 날 즐겁게 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외국인인 왔을 때 보이던 행동들이 생각나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왜 외국에 나가면 어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돌아와선 안 되는 걸까?) 농촌에선 우리가 처음 본 외국인이라고 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얼굴만 마주쳐도 눈물을 글썽거리 나를 당황하게 했고(내가 무섭게 생겼나?) 갖은 노력 끝에 한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고 흐뭇해하던 사진은 지금 봐도 절로 웃음이 나온다. 아이들은 어딜 가도 예쁘다. 그런데 왜 어른이 되면서 달라지는 걸까?

폰디체리로 와선 약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져 상점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너무 많이 걸어

왔던 생각에 오토 리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다가 바닷가에 가보자는 한 친구의 말에 다시 오토 리샤를 타고 바닷가에 나갔는데 너무 어두워 소리만을 들으며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시골 마을이라 그동안 묵었던 호텔 중 시설이 가장 좋지 않다고 걱정을 하던 인솔자의 걱정과는 달리 그곳이 가장 편했던 난 어쩔 수 없이(?) 소박하게 살아야 하나 보다.

다음 날엔 오로빈도 아쉬움에 갔다. 그곳에 앉아 명상을 하니 기가 쑥 쑥 들어오는 느낌! 그리곤 생태 공동체라 하는 오르빌에 갔다. 서구적인 건물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많은 서양인들로 인해 그리 좋은 인상은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마트리만디르(직역하면...모성의 사원 Temple of the Mother, 스리 오로빈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성 the Mother이란 진화해 가는, 의식적이고 지적인 거대한 생명 원리, 곧 우주적 모성을 상징하는 개념. 그것은 인류가 현재의 한계를 뛰어 넘어 진화의 다음 단계, 곧 초정신적 의식으로 탐험의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쓰고 있다)에서의 경험은 나의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묵언 수행(?)을 하며 그곳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무작정 걸어 갔다. 나중엔 신발까지 벗게 하여 맨발로 흙을 밟으며, 아직도 미완공이지만 마트리만디르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거대한 황금빛 공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길이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아래가 보이는 길인 것이다. 올라가는 내내 난 내가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생각했고, 내실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짧기도 했겠지만 그곳의 모습(흰 대리석 벽과 흰 카펫, 중앙에 있는 맑은 크리스탈 공은 건물 꼭대기에서 전자기 제어를 통해 유도되어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태양빛을 사방에 퍼뜨리고 있다)보다는 나의 두려움을 마주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곳에 들어가 명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리고 호텔에 도착하니 주변 환경이 환상적이다. 바닷가가 걸어서 3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 저녁을 먹고 바닷가에도 가보고, 혼자서 밖에 나가 별도 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나도 돌아보고... 그리곤 들어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웃음소리에 놀라 깨 보니 한시간이 지났다. 옆방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라 다시 잠들기를 포기하고 옆방으로 갔더니 10명 가량이 모여 놓고(?) 있었다. 같이 놀다보니 어느새 시간은 5시가 되어 가고 결국 해 뜨는 것을 보러 바닷가로 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 뜨는 광경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리곤 들어와 잠이 들어 일어나 보니 11시. 오전 프로그램이 해변에서의 휴식이길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아직도 난 인도에 있을지도... 하긴 내 책공도 있었지?

오후엔 현대자동차 현지공장을 견학하는데 지금 그대로의 인도가 좋아 현대자동차가 세워지기까지(?) 하니 그곳 입장에서 보면 이번 프로그램을 괜히 만들었다고 생각할까? 그리곤 첸나이 공항에서 가이드였던 썬과 동진씨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던 버스의 조수였던

친구와 인사를 하는데 떠나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거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이야기해 더 있다 갈 걸... 예전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유가 뭘까? 인도이기 때문일까 아님 내가 백수(?)이기 때문일까...

비행기를 타고선 달라진 나를 발견했다. 마음도, 몸도, 마트리만디르에서 나의 두려움을 만나더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리곤 인도를 떠올리는데 눈물이 나온다. 이 눈물의 의미 뭘지?

말레이시아에서의 이들은 인도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높은 건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느낌, 차가워 보이는 말레이시아와 작고, 조금은 어질러진 느낌이지만 자연스러운 인도가 자꾸 비교가 되며 인도를 더 많이 그리워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해야 할까? 그나마 정을 좀 줄 수 있었던 건 동굴에서 만난 원숭이 때문... 사과를 받아 쥐곤 웃는 얼굴이 찍힌 원숭이를 보니 200개가 넘는 계단을 힘들게 오른 보람이 느껴지는 거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2시간을 넘게 잠을 잤다. 비행기 안에서는 처음으로... 사람이 적어 누워서 잘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나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느낀 예민함을 없애려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그리곤 또 신나는 일이 벌어졌다. 구름 위로 해가 뜨는 광경을 목격한 거다. 빨강, 주황, 노랑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다가 하늘색이 펼쳐져 있는 모습은 혼자만 보기엔 아까울 정도였다. 필름을 다 써서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하지만 내 마음에 찍어 놓았다.

나를 생각하는 여행.

영성에 대한 생각들.

또 가고 싶은 인도...



상담실 Q&A

이 코너는 한국보육교사회로 들어온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 자기 권리는 스스로 찾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실을 이용해주세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과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과는 보육실습이 '전공선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리는 소문에 보육실습이 전공필수로 되어야만 보육교사1급이 인정된다고 해서, 98년도
에 졸업한 선배들 중 보육실습을 들었는데도 전공선택으로 들어서 자격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여
파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A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 4월 29일자로 현행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1급자격기준과 관련한 "보육실습"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자격인정사항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1) 보육실습을 교과목명으로 채택하지 않고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과목명이 달라도 내용상 보육
실습을 받은 경우에는 "보육실습확인서"('03보육사업안내 p271)를 첨부하여 인정합니다.

※ 다만, 보육실습을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으로 이수한 아래의 해당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보육
실습확인서(실습기관이 폐기되었거나, 근거서류 폐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장 확인 생략 가능)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
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실습기관 : 정원이 15명 이상인 놀이방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종일제에 한함),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영유아시설)

☞ 실습기간 : 4주 이상(200시간 기준)

- 2) 보육실습을 전공필수로 하여야 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령이
바뀌어야 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부제로 운영하면서 성적증명서에 선택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는 경우, 학과에 따라 보
육실습을 필수로 하계급 내규가 규정되어 있으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정받게 됩니다.

- 3) 위의 사항은 1998년 3월 졸업 이후부터 발표시점까지 자격을 취득한 분과 앞으로 자격을 취득
하시는 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여행지추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김 휘 경 · 본회 정보간사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항상 열정적이었던 당신, 연애할 시간도 없는 보육교사들이여~ 떠나라!
연인들과 함께, 5월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떠나보세요~

남이섬

수도권에서 대학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어김없이 한번쯤은 MT 때문에 다녀갔을 남이섬.
그 남이섬이 이제는 수영장과 황토방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레저 섬으로 변모했다. 나무들이 시원
스레 우거진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은 연인들이 오붓하게 데이트하기에 적격이다.
한창때 풋풋했던 첫사랑의 기억도 떠올리고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한 때도 되짚어볼 겸, 연인과 함
께 하루 나들이코스로 어떨까? 수도권 이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남이섬 내의 민박시설을 이용하
시기나 근교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1박 코스로 다녀오심도 괜찮을 듯!

이용시설

수영장, 황토방, 모타보드, 도깨비성, 사격장 등

자전거 대여

대여장소 - 매표소 / 관리사무소 앞

- 1인용 3,000(30분)/5,000(1시간)

- 2인용 6,000(30분)/10,000(1시간)

어린이용 및 유아용의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거리

- 레종 갤러리: 남이섬의 아름다운 사진전시 및 이벤트(다양한 작가들의 전시와 문화상품 판매)

- 그때 그시절: 60-70년대의 생활모습과 문화전시(갤러리열)

- 장군터 옆 메타세콰이어길(겨울연가 촬영장소)
- 은행나무길(영화종독 촬영장소)
- 중앙жат나무길(섬중앙으로 가는 큰 길)
- 목백합/백자작나무길(베스트극장/겨울연가 자전거린)
- 장군터주변 : 장군상들, 아트샵(문화상품전시, 도자기만들기)
- 연가 : 카페내 드라마촬영장면 소개, 문화상품 전시
- 남이섬 동물가족

입장료

성인 5,000 청소년 3,500 어린이 2,500

교통편

- 1) 기차역(가평역)과 버스터미널에서 택시이용
5-10분정도 걸리며 택시요금은 3,500~4,000원선
- 2) 터미널에서 시내버스 이용가능(2시간간격)
- 3) 자동차로 서울 → 올림픽 대로 → 팔당교 지나 45번 국도 → 새터유치원에서 46번 국도 이용 → 청평 → 가평 → 우측 → 경춘주유소 사거리 우회전 2.4km → 남이섬 주차장

남이섬(섬내): 200-914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198번지 전화번호 031)582-5118

<http://www.namisum.com/>

산정호수 포천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떠날 수 있는 산정호수는 준봉들에 둘러싸여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주변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봄에는 호수주변에 온통 개나리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숲 그늘이 호수에 드리우고 가을에는 화려한 단풍과 수목이 쌓인 낙엽이 운치를 더하고 겨울에는 고즈넉한 설경으로 변신하여 철 따라 다른 모습으로 연인들의 가슴을 유혹한다.

가로등 불빛과 물안개가 어우러진 산정호수의 밤풍경은 정말 낭만적이고 밤새 수면을 예워썬 물안개가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호수의 비경은 정말 아름답다.

호수 주변의 산책로를 따라 다정히 거니는 낭만도 만끽할 수 있고 호수에서는 연인과 단둘이 오붓하게 보트놀이를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수영도 즐길 수도 있다.

전화번호

(031)532-6135, 6104 / 531-6103

교통안내

상봉터미널 - 포천행 운천행 버스 - 산정호수행

지하철 1호선 의정부행 -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 산정호수 경유 노선 이용

운행시간 및 요금

상봉터미널 - 포천터미널 05:30-20:35 / 20분 간격 / 2,200원

포천터미널 - 산정호수 06:40-21:50 / 10분 간격 / 2,000원

승용차는 미아사거리에서 약65km 1시간30분 정도소요.

의정부역 앞에서 43번 국도 타고 신철원 방향50km쯤 가면 산정호수 입구 삼거리, 여기서 129번도 타고 우회전 4km쯤 달리면 산정호수 매표소와 주차장이다. 여기서 3km쯤 더 들어가면 동남쪽 호반과 식당촌이 나온다.

보육교사들과 함께하는 민화프로젝트 강좌

- 일 시 : 2003년 6월 28일(토) 3시~7시p.m.
- 장 소 : 여성사회교육원(천성빌딩 3층) 4호선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 강 사 : 고영미, 부안지(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 보육교사)
- 참가비 : 25,000원(정회원 20,000원) - 재료비 포함
- 준비물 : 색인펜, 물통, 세필붓(미술붓 5호 정도), 물감, 파스텔, 연필, 자우개
- 계좌입금 : 우리은행 817-366200-02-001 예금주:이윤경
- 주 회 :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참가신청 : 전화접수 후 입금 02-2271-1548(담당자 김휘경) • 환불은 3일전 가능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전통교육"을 주제로 전통놀이, 아이 어르는 소리, 오감 살리기 미술 교육 등을 진행하여왔습니다.

이번 교육은 조상들의 삶의 애착이 반영되어있는 "민화"를 주제로 하여 우리 전통의 다양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진행한 생생한 프로젝트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시 간	민화 프로젝트	강 사
3:00 - 3:45	민화의 개요	고영미
3:45 - 4:45	활동1 - 전통민화	부안지
4:45 - 5:00	휴식시간	
5:00 - 6:00	활동2 - 현대민화, 전시회	부안지
6:00 - 7:00	질의 응답 및 소감발표	고영미



2003년 한일보육교류 "교사연수" 신청자 모집

한국보육교사회와 한일보육교류연수협의회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에서는 지난 10년간 한일간의 보육교사들의 인적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본의 보육교사들이 한국에서의 보육연수를 2주간 진행하였고 2003년에는 한국의 보육교사들이 일본 오오사카지역의 보육시설에서 2주간 보육연수를 실시합니다.

보육연수시 한 시설당 2명의 한국교사가 배치되며 2주간 당 시설의 종일 프로그램에 보조교사로 투입되어 연수를 받게됩니다. 연수기간 중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에서 진행하는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숙박은 일한보육교류협의회에서 제공합니다.

우리 회에서는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의 다양한 보육형태와 포괄적 서비스 부분을 중심주제로 두고 집중적으로 관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참가자 개인의 연수참가의 목적이 포함됩니다. 연수 참가자는 연수 이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수단으로 선정된 회원들은 출발 전 3회에 걸친 사전교육을 통해 주제의 심화, 일본의 보육현황과 연수시설에 대한 이해, 연수일정 확인, 간단한 일러회화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수단 선정은 정회원경력, 회비납부율, 활동참여도, 연수계획서를 검토하여 상위 4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은 6월20일까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개별통보됩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연수단 선정후 개별통지하여 드립니다.

연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시 : 2003년 10월 20일~11월2일(2주간)
- 장 소 : 오오사카 소재 보육시설(시설당 2명)
- 대 상 : 보육교사 4명
- 참가비용 : 개인별 항공비와 참가비 10만원

참가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03년 5월 26일~6월 14일
- 신청자격 : 한국보육교사회 정회원
- 신청서류 : 이력서 · 연수계획서 (연수계획서는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이메일 kda@chollian.net

우편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한국보육교사회
팩스 02-2275-8506
문의전화 02-2275-8505(담당 이강선주)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3년도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면 전문적인 서비스와 풍부한 자원의 확보로 지역의 아이들과 주민 모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보육시설의 연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건강한 아동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길에 여러분이 길동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일정 (금-토 1박 2일)

광주 5.30-5.31(전남 화순 도곡온천관광호텔) 서울 6.13-6.14(송실대 사회복지관)

대전 8.22-8.23(충남 공주 동학산장) 경기 8.29-8.30(장소 미정)

부산 9. 5-9. 6(부산대 국제상남회관) 인천 9.19-9.20(장소 미정)

대구 10.10-10.11(장소 미정)

강사진 소개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인주 / 볼런티어21 조직홍보부장

이은애 / 이화여대 성산복지관 이화어린이집 원장, 마포자활후견기관 실장 역임

임남희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부회장 역임, 현 안산 양자자활후견기관 실장

- 신청처 : 온라인 신청(<http://icarenet.kdta.or.kr>) 접수확인 참가비 입금 접수 완료
- 대 상 : 보육시설 종사자, 지역 복지·보건기관 실무자, 보육·복지담당 공무원, 지역단체 실무자 선착순 30명
- 참가비 : 15,000원
- 입금계좌 : 외환은행 151-13-08079-2 황미혜(당일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주 회 : 한국보육교사회(02-2275-8505)
- 후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째날(금) 일정

14:00-14:30	접수
14:30-15:00	여는 마당
15:00-16:30	강의 1) 보육시설의 복지적 기능 강화, 왜 필요한가(백선희)
16:30-17:00	휴식
17:00-18:30	강의 2) 보육시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자원정보(송인주)
18:30-20:00	저녁식사 및 방 배치
20:00-21:30	토의)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보육시설의 역할과 관계형성 방안
21:30-23:00	관계형성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둘째날(토) 일정

7:30- 8:00	기상 및 세면
8:00- 9:00	아침식사
9:00-11:00	그룹웍샵 1) 우리 지역 복지당 만들기(이은애 / 임남희)
11:00-12:00	사례발표) 지역사회와 보육시설 - 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연계 서비스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그룹웍샵 2) 보육시설의 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한 모의훈련(이은애 / 임남희)
15:00-15:30	그룹웍샵 총화
15:30-16:00	닫는 마당

* 본 사업 홈페이지 <http://www.icarenet.kdta.or.kr>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족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접수 : 5월19일 - 5월24일

일시 : 2003년 05월 30일 - 2003년 05월 31일

주최 : 한국가족복지학회(02-703-3345)

장소 :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본관6층 대회의실

주제 : 가정복지상담의 실태 및 가정복지상담원제도의 모색과 과제

참가비 : 일반-20,000원 학생-10,000원

내용 : - 특별강연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체계

- 제1주제 가정복지상담프로그램의 실태와 과제

- 제2주제 가정복지사업영역과 가정복지전달요원의 역할 및 활동

- 제3주제 가정복지상담원의 자격과 교육방향

이광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

11:00~11:30 개회식

11:30~12:30 신문·잡지 기사의 양적 분석을 통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 변화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2:30~14:00 중식

14:00~15:00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 변화

정미라 (경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5:00~15:10 휴식

15:10~16:10 생활속에 나타난 아동에 대한 기대 변화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6:10~16:30 질의 응답

6월 25일

08:30~09:30 등록

사회 : 임춘금 (문경대학교 교수)

09:30~10:20 일본 사회에서 기대하는 인간성과

자녀교육

勸使 千鶴 (Chizu Teshi, 일본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10:20~11:20 일본 보육에서 교육과 문화의 연계

勸使 千鶴 (Chizu Teshi, 일본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11:20~11:30 휴식

11:30~12:30 일본의 보육시설·유치원에서의 교육과 문화 연계의 실제

岡林 恭子 (Okabayashi Kyouko, 나고야시립 다카유치원 원장)

12:30~14:00 중식

14:00~15:40 한국의 보육시설·유치원에서의 교육과 문화 연계의 실제

백혜리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 25일 등록, 휴식, 중식시간에 연구자료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예정임

삼성복지재단 제11회 국제학술대회

삼성복지재단은 '어린이와 문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어린이교육,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교육 현장에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 등의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아동권의 변화를 조명해 봄으로써 사회·교육제도 정립의 중요한 가치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보육 및 유아교육 현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 어린이와 문화 (Children & Culture)

일시 : 2003년 6월 24일(화) ~ 25일(수)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

일정 :

6월 24일

08:30~10:00 등록

사회 : 이길동 (계명문화대학교 교수)

10:00~11:00 세계 각국의 문화와 어린이교육

등록 및 참가비 :

구분	기간	참가비	비고
사전	일반	6월 24일(화) ~ 40,000원	교재비 포함
등록	학생	6월 18일(수) ~ 20,000원	
당일	등록	6월 24일(화) ~ 50,000원	

※ 입금계좌 : 한빛은행 103-04-109631 (삼성복지재단)

※ 학술대회 당일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등록은 가능한 학교별 대표를 통해 단체로 등록하되, 선착순 마감(100명) 이므로 입금전 필히 삼성복지재단으로 확인해 주십시오(학술대회 당일 학생증 필히 지참, 학생은 사전등록만 가능).

※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불참자들에게는 학술대회 후 교재 발송).

※ 사전등록한 어린이개발센터 자료실 유료회원은 당일 등록대에 오셔서 회원증을 제시하고 10% 할인 금액을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 25일은 통역장비를 대여하므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 주십시오.

※ 학술대회 기간중 중식은 제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삼성어린이개발센터 (02-750-7886, 7884)

등록 : 삼성어린이개발센터 (02-750-7886, 7884)

녹색연합 건강한 먹거리강좌

1. 식생활강좌 (가족과 지구를 살리는 생태적 식생활)

목적 : 식생활 속에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왜곡된 정보와 식생활 문화를 고찰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생태적 식생활이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식생활의 대안을 모색한다.

일시 : 2003년 5월 22일~ 6월 12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장소 : 광주 YWCA강당

강의내용 :

① 1강/2003. 5. 22(목)

아이들의 삶과 생태유아교육

임재택 (사)생태유아생협 회장

② 2강/2003. 5. 29(목)

미학인 비행식품 GMO를 찾아라

조정미 한국생협연합회 사무국장

③ 3강/2003. 6. 5(목)

잘먹고 잘사는 법

김수현 「밥상을 다시 차리지」 저자

④ 4강/2003. 6. 27(목)

가족과 지구를 살리는 요리법 특강

정안봉 고기보다 맛있는 채식요리 저자

2. 시민참여 프로그램 (유기농 현장을 찾아서)

목적 : 시민강좌를 통해 교육된 식생활 현황과 그 대안으로서의 생태적 식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강조된 유기농업의 중요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땅과 생명을 살리는 유기농업을 체험하며, 생산자, 소비자, 도농 교류시간을 마련하고, 생태감성 프로그램을 통해 폭넓은 자연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일시 : 6월 28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 장성 한마음자연학교

자세한 문의 : 녹색연합 233-6501

정은실 017-603-6327

장소 : 장성 한마음자연학교

자세한 문의 : 녹색연합 233-6501

정은실 017-603-6327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기간 : 2003년6월17일(화) 저녁 7시 ~ 9시까지

내용 : 1. 보육시설의 안전의 정의

2.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필요조건

3. 보육시설에서의 안전교육

4. 보육시설에서의 안전관리

5.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의 실제

강사 : 윤선화(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 연구개발 부장/ 홍신대학교 아동학과 겸임교수)

대상 : 시설장 및 보육교사,

보육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

장소 : 안산시보육정보센터 3층 강당

교육비 : 1인당 10,000원

교육접수 : 6월 16일까지 전화접수

TEL: 031)410-5394(선착순 40명)

- 전화접수 후 3일 이내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 됩니다.
- 교육접수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211063-51-059084 예금주 : 안산보육정보
- 교육비를 직접 센터에서 받지 않으니 반드시 교육비는 통장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의왕시 대체교사파견 인력은행 회원 모집

의왕시에서는 2003년부터 보육시설에서 출산 휴가, 보수교육, 실기교육, 2주 이상 평가 등과 같은 사유 발생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왕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보육교사·취사부) 대체인력 회원을 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는 회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회원가입 : 의왕시보육정보센터

<http://www.uweducare.or.kr/>

안양시 대체교사파견 인력은행 회원 모집

안양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대체인력파견을 위하여 인력은행을 회원제로 운영, 대체인력이 필

요한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한 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교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는 대체교사파견인력은행 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

가입방법 :

안양시 보육정보센터를 직접 방문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회원 적정 기준에 의하여 회원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회비는 없음)

회원신청자격 :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 유치원 정교사 자격 소지자
- 보육관련학과 재학 중인 학생
- 보육교사 교육원 재학 중인 학생

구비서류 :

- 자격증빙 서류 1부(자격증 사본, 성적증명서)
- 신분증
- 건강진단서 1부
- 증명사진 1장

인력비 :

- 안양시 대체인력 지원사업대상자/1일: 25,000원
- 안양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대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신청사실과 파견교사 상의 후 결정

회원특전 :

1. 센터에서 발행되는 보육정보지 및 각종 간행물 무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센터에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파견사업팀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구직 연결해 드립니다.
4. 센터의 각종 도서 및 자료를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제공합니다.
5. 결격사유가 없는 한 평생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안양시 보육정보센터(031-383-5171)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양소식

- 3월 3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찾아 영유아기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양성평등인식의 중요성과 교육을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후 진흥원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3월 3일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에서 주최한 보육정책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보육의 공공화 방향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3월 6일 조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3월 6일 집행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3월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홈페이지 제작 준비모임이 있었습니다.
- 3월 8일 KBS 아침마당 세계여성의 날 특집 생방송 "보육, 이제는 국가경쟁력"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3월 8일 3.8여성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보육교사사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연물 놀이감을 돌려주자"는 주제로 전시와 등그미 짜기 체험을 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확보·보육교사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란 풍선이 휘날리는 날이었습니다.
- 3월 8일 교육위원회의가 갈릴리교회 자모실에서 있었습니다. 오윤정, 서은희, 남명자, 조선경, 최순옥, 이현경 교육위원님이 참가하셨고, 건국대 유아교육과 염지숙교수님께서 자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날은 염지숙선생님이 번역하신 [유아교육과정의 재개념화: 그 대화의 시작]을 가지고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 3월 10일 부산지부의 보육정책교육을 이윤

경 공동대표가 진행하였습니다. 부산시 보육시책사업에 대한 검토와 보육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3월 11일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창립대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연대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3월 12일 KBS <세상의 아침> 프로그램에 보육을 주제로 이윤경 공동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 3월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연구진 3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보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내용과 분류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3월 18일 복지부에서 진행된 중앙보육정보센터 위탁심사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심사위원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3월 19일 12시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외침 집회가 반전평화여성행동주최로 있었습니다. 우리회는 반전평화여성행동에 참여단체로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3월 20일 정책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복지부장관의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발언에 대한 논의와 보육교사 권리찾기 자료집 준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3월 21일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지표개발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연구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3월 21일 돌봄을 주제로 한 부산지부 순회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3월 23일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윤경(공동대표), 김명선(공동대표), 이강선주(사무국장), 지연(경기지부장), 김진숙(서울

지부장), 정혜정(대구지부장), 박은아(인천지부장), 최미라(광주지부장)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2003년 보육지침에 대한 분석과 운영위 안건논의가 있었습니다.

- 3월 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 1차 기획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 책임주체 선정 및 사업에 대한 설명과 준비사항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3월 26일 서울시보육정보센터 3주년 기념 세미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평가인증제 도입 방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3월 27일 수원여성회에서 주최한 방과후보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3월 2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가정육성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3월 29일 여연복지위 가족분과 회의에 이윤경공동대표가 복지위원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3월 29일 인천지부 새쌍둥이, 새싹들의방 어린이집 추모제 및 이천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 사무국을 대표하여 이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4월 1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보육업무 부서이 관에 대한 본회의 입장에 대해 케이블 뉴스 채널인 YTN, 주간신문 우먼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 4월 2일 여연복지위가 주최한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설명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강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4월 3일 반전행동 국민회의 기자회견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연대단체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4월 3일 "한국여성노동자회의"가 새로 이사한 사무실 개소식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4월 3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에서 주최한 보육정책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4월 4일 여연복지위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복지위원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4월 4일 박윤희 고양시의원의 요청으로 이윤경 공동대표가 면담하였습니다. 지역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4월 4일 참여연대 복지위와 여연복지위와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복지위원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4월 5일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지표개발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연구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4월 5일 한국여성영화인모임 사무국장의 요청으로 이윤경 공동대표가 면담하였습니다. 여성영화인의 보육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과제 선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4월 7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건양대 아동보육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육정책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4월 8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대한매일과 현재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4월 9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주간잡지 미즈엔의 일일인터뷰어로 지은희 여성부장관을 인

터뷰했습니다.

- 4월 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연구진 4차모임이 우리 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워크샵때 진행할 모의사례훈련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번 모임으로 연구진 모임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쁜 와중에도 참여하셔서 도움을 주신 다섯분의 원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4월 9일 7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 자리찾기 2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일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4월 10일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 수도권 기획회의가 영등포에서 있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지부의 책임주체들이 참석하여 각 지부별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과 지역 발표자 섭외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4월 11일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지표개발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연구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4월 12일 수원쟁이골연수원에서 1차 운영위 숙박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윤경(공동대표), 김명선(공동대표), 이강선주(사무국장), 지연(경기지부장), 김진숙(서울지부장), 박은아(인천지부장), 최미라(광주지부장) 선생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대중조직에 있어서의 리더쉽]을 주제로 민주노동당 교육전선실장인 손낙구님의 강의와 운영위 훈련프로그램으로 지부장의 역할과 자세, 지부 키우기와 다지기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 4월 12일 대전여민회에서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 지방권 기획회의를 가졌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4개 지역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역별 준비상황 점검과 지역 발표자 섭외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4월 15일 여연이 주최한 현 시기 보육정책전문가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4월 16일 우리 회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특별시보육시설연합회가 모여 미국·이라크전으로 촉발된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어린이들과 평화를 이야기하자"라는 주제의 교육사업을 공동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4월 16일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현장지원가 보육정책교육을 이윤경 공동대표가 강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4월 17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와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청회 준비관계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4월 17일 6시 돌봄을 주제로 한 현장연구모임 첫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튿날로 전국 대 유아교육과 교수 겸지숙선생님, 도우미로 교육위원 오윤정선생님과 우리 회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고, 인천지부 강나라선생님, 경기지부 강영신선생님, 광주지부 박은경선생님, 경기지부 이교진선생님, 서울지부의 서주희, 이성봉선생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첫모임에서는 서로에 대한 소개와 모임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고 돌봄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정을 위한 교육/윤은주]과 [반성적 사고와 유아교사교육/박은

해]의 글에 대한 염지숙선생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 4월 19일 여연복지위 가족분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4월 19일 교육위원회 회의가 여성플라자에서 있었습니다. 오윤정, 남명자, 조선경, 최순옥, 이강선추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교육과정의 재개념화> 3, 4장 발제가 있었습니다.
- 4월 19일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에서는 [현장교사와 함께하는 예비교사워크숍 평화와 민화를 주제로 있었습니다. 예비보육교사 37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는 평화교육의 강사로 서정은, 김실이선생님이 수고해주셨고, 민화프로젝트에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의 고영미, 백춘하, 부안지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 4월 20일 여성부장관 초청 여성단체대표 오찬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4월 22일 광주지부 보육조례제정 준비를 위한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 4월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의 홈페이지인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 우리네 아이들'이 개설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icarenet.kdta.or.kr>이며, 지역별 자원정보 제공, 사례와 자원정보 교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월 22일 10시 우리 회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특별시보육시설연합회와 함께 평화교육관련 2차 연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보육시설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해 보고 결과보고회를 가지는 일련의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 4월 23일 참여연대에서 주최한 <보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4월 23일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지표에 대한 현장자문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연구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4월 24일 2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관한 주제로 보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의견을 취합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 4월 2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청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법 개정에 대한 본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4월 25일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에서는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정책]을 주제로 예비교사 교육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비교사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강사로는 이윤경 공동대표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 4월 26일 정책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위 재편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 운영위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 4월 26-27일 3시 씩씩이어린이집에서는 [회원내부교육-다양한 노조조직의 경험 공유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조직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위원들과 서울지부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상림 전국여성노조 위원장님이 여성노조의 경험에 대해 들려주었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여성오님께서 지역노조의 경험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 4월 29일 여연에서 주최한 <현 시기 보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지부 소식

서울지부

- 3월 6일 중앙조직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보육교사회의 조직전망의 방향을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지부에서 김미나 조직부장이 참석했습니다.
- 3월 8일 세계 여성대회가 대하로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지부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여성의 권익과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 3월 21일 서울지부 월모임이 여성평화의 집 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겪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사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월모임 준비에 바빴던 구미진, 이수미 선생님이 수고하셨습니다.
- 4월 7일 4월 서울지부 집행부 회의가 씩씩이 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중앙사업과 월모임 평가와 준비, 신입회원의 날 준비, 부서사업 등의 많은 지부 사업을 처리하는 회의였습니다.
- 4월 12일 서울지부 신입회원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신입회원이던 이수미, 이성봉, 임정수, 최종문, 한송희 선생님이 신입의 이름을 맡아내고 회원증을 받았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참, 10년만에 회원증을 받은 박금옥 선생님도 축하합니다. 더욱 활동적인 모

습들이 기대됩니다.

- 4월 25일 4월 월모임이 7시 30분 여성평화의 집 지하 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현장교사들이 궁금해하는 교사 처우에 관한 "작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보육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님과 함께 평소 현장에서 궁금했던 교사가 알아야 할 법안과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4월 22일 신입교사와 선배교사가 함께 하는 여의도 한강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한강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최종문 선생님을 계기로 강행된 나들이였는데 비 오는 한강의 야경에 감탄하며, 삼겹살에, 동동주까지 곁들인 즐거운 자리였다고 합니다.
- 5월 2일 5월 집행부 회의와 운영위 회의가 7시 이상옥 선생님 집에서 있었습니다. 아담한 이상옥 선생님 집이 회의장으로 변해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부

- 3월 29일 새생동이, 새싹들의방 어린이집 추모제 및 이전식이 있었습니다. 이선주 선생님이 참석해주셨고 기간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무사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 선생님들의 그림자 인형극이 히트였다네요.
- 4월 19일 회원의 날에는 인천 여성노조 회장의 노조 강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비가 왔지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 5월 17일 회원의 날에는 스승의 날 자축연을 할 계획입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정도 나누며 신나게 보낼 참입니다.

경기지부

- 5월 17-18일 스승의 날 자축기념 및 회원의 날을 맞이하여 강화도 마니산으로 산나물기행을 갑니다. 임미란 선생님덕에서 뭍을 건네 재미있었죠!
- 지난 4월 월례회는 예정시간을 훌쩍 넘기면 서까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토론문화가 살아나려나 봅니다.

광주지부

- 3월 22일 광주지부 3월 월례회 및 입방식이 있었습니다. 발산 우리동네어린이집 개원과 더불어 교사회 사무실이 그곳에 아담한 동지를 붙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참가하셨습니다. 축하해주셨어요.
- 3월 26-30일 광주지부 신입회원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승희, 김미옥, 김진희, 김혜영 선생님의 신입회원교육이 잘 끝났어요. 앞으로 열성적인 신입회원님들의 모습이 기대되는군요.
- 4월 3일 노동실업광주센터에서 주최한 '베이비시터교육'에 유희원, 이정미선생님께서 강사로 초빙되어 잘 마쳤습니다.
- 4월 12일 광주시 소재 사단 법인 열린가족 상담센터와 함께 보육교사와 양호교사대상으로 상담교육이 있었어요.
- 4월 22일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 선생님들이 모인 가운데 여성부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4월 24일 광주시 동구와 남구 선생님들이 모여 여성부 보육업무 이관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부산지부

- 새내기 보육교사 현장지원 소강좌
4/19일(토) 동래여성센터교육장에서 지역의 새내기(초보)보육교사를 위한 길잡이 소강좌가 있었습니다. 멀리 목포에서도 우리 회원 시설인 새꿈담는 어린이집에서 신입교사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열정이라, 후배교사를 키워내고자 어떤 도움도 마다 않는 선배교사의 모범적인 배려와 지원의 모습에 참 감동스럽더군요.
- 방과후 분과모임 실시
4월부터 보육교사회 내 방과후 분과모임을 꾸렸습니다. 어린이집 내 방과후반과 공동육아 방과후방 그리고 지역 방과후교실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보호와 교육을 함께 해가고 있는 방과후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꾸리고있는 곳을 기준으로 조직(매월1회 모임)하였습니다. 방과후에 대한 전문적인 고민과 대안공유, 나아가 공동실천의 장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 포괄적 보육 워크샵 지원을 위한 소규모시설 장간담회
4월 30일 보육교사회사무실에서9월에 실시할 예정인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보육교사회 회원으로 있는 소규모 시설장모임을 가졌습니다. 용어 자체에는 낯설어 했지만 좋은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과 지향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는 시설들인지라 소중하고 다양한 여러 사례들이 이야기되었습니다. 하반기 워크샵때 한 꼭지로 들어가기에 넉넉한 이야기들입니다.
- 5월 15일 스승의 날 기념 2003 교사의 밤!
동래여성인력센터에서 스승의 날 당일 저녁

- 7시부터 보육교사회 자축행사가 열립니다. 어린이집별로 음식을 한가지씩 협찬하여 맛있는 것도 나눠먹고 죽을통살통 놀아보기도 했습니다. 잘 놀면 친해지고 힘든 고개 함께 넘길 집단에너지도 생겨나겠죠? 경매도 해서 살림에도 보태고 부적도 팔아 어려움도 서로 도울 것입니다.
- 부산시보육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저희 부산지부가 제안하여 부산시 보육조례 제정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 준비로 지역 여성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이날은 보육조례제정운동의 모범으로 알려진 과천시의 경험을 강의를 통해 상세히 듣고 집행실무를 꾸려서 알찬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녹색도시부산21지원 "녹색실천어린이집 확산과 어린이생태환경교육심화 및 체계화교육지원사업"
3년째 지원을 받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공모전에서 시상식도 하고 어린이집별 실천사례들을 자료집으로 묶어냈는데 올해는 질을 높여 업그레이드 된 활동과 영역별로 체계화, 심화시켜 좋은 결과물이 남길 바랍니다.
- 5월 어린이를 위한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달
올해는 어린이 날 행사를 대신하여 한 달간을 어린이집 일상활동으로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활동들을 벌이고 그 결과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어린이집과 방과후분과 참여한 <어린이 평화, 인권문화제와 이라크 어린이 돕기 평화장터(가칭)> 공동행사를 5월 30일날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축하합니다

- 목포의 김행미선생님께서 4월 8일 씩씩한 옥동자를 출산하셨습니다. 배미정 선생님도 14일 잘생긴 옥동자를 출산했습니다. 광주목포지부의 두 분, 건강한 출산 축하드려요.
- 4월 3일 드디어 신혼의 재미에 푹 빠졌던 인천지부 이연순 선생님께서 늦둥이(?)를 무사히 낳으셨습니다. 순풍순풍 자연분만 하셨습니다. 아기이름은 아윤지구요, 너무나무 예쁜 여자아이입니다. 가슴이 파듯한 아이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 4월 19일 광주지부 박미영선생님의 딸 정은이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무럭무럭 잘 크기를 바랍니다.
- 5월 11일 광주지부 김수중 선생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 4월은 잔인한 달? 결혼식 쫓아 다니느라 부산지부의 선배교사들이 다리품 파느라 어지간히 고생시킨 달이래요.
- 부산지부 동래지회 김지현(보리)선생님과 박경미(하늘새)선생님이 2주 간격으로 결혼하셨습니다. 또 금정지회 신미나선생님도 4월 27일 하늘새선생님과 같은 날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보리선생님과 하늘새선생님은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시고 신미나선생님은 당군이 계시는 통영으로 가서 살게 된답니다. 잘 싸우며 재밌고 행복한 결혼생활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패유를 빙니다

- 안산의 박금희 선생님과 임남희 전 부회장이

교통사고로 2주씩 입원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차이로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서 계셨다네요. 지금은 일상활동에 바쁘신데 교통사고의 여파로 허리통증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모쪼록 다친 허리도 많이 나아지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차 조심하구요.

환영합니다

- 싱그러운 5월에 인천 새쌍둥이어린이집에 교사 새식구가 늘었습니다. 고경애, 김정희 선생님. 아직은 수습이지만 좋은 인연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 부산 포구나무에 새로 들어온 톨랑톨랑 사랑스런 물오리(박은미)선생님이 신입회원이 되셨습니다. 튼튼한 체력과 하고же이의 에너지로 뒤편 몸 사리지 않고 새로운 재안을 내며 늙은 고목 같은(?) 포구나무에 새순을 띄워내는 활력과 에너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 포구나무선배들의 인덕이겠죠!
- 부산지부 아이들세상에 들어온 새내기 김혜은(울챙이)선생님과 강복자(코끼리)선생님도 재미있는 짝꿍입니다. 별명을 보아 아시겠죠? 외향과 내향적인 모든 면이 확연히 다르지만 함께 방을 맡아 꾸리고 지회모임도 사이좋게 나오신답니다. 카오스와 좌충우돌의 시간을 거쳐 이젠 교사로서 제 자리도 찾아가며 재미도 느끼는 안정감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관심과 의욕이 넘치는 큰 코끼리선생님과 세상에 달관의 경지에 있는 울챙이선생님의 재주를 보육교사회라는 공동체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시설 개보수 합니다

- 수원평동어린이집이 유아 안전 시범 시설로 지정되어서 조만간 시설 개보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보수 끝나면 구경오십시오.

하루주점을 엽니다

- 5월 31일(토) 부산지부 아기자람터 자모회 주최로 자람터 후원을 위한 하루주점이 열립니다.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좋은 어린이집을 지키기 위해 많은 문제를 감당해온 교사들의 자람터 사랑을 돕고자 자모회에서 나섰습니다. 시설환경의 열악함을 해결하며 이사 준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람터 터주인 교사들에게 많은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회원들과 지탁연시절의 명맥과 전통을 잇고 있는 자람터를 알고 있는 전국의 회원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

- (03년 4월말 기준입니다. cms 출금보고는 3월 30일 이전 출금액 기준입니다)
- (서울지부) 2월 일부, 3월 일부
(인천지부) 2월 완불, 3월 완불
(경기지부) 2월 일부, 3월 일부
(광주전남지부) 1월 완불, 3월 일부
(평생회원)
최순옥 15차 5만원, 이윤경 완불 10만원
(회원회비)
이상미 1만원, 김정화 1만원, 서은희 2만원, 이성혜 1만원, 조선경 2만원, 하미선 2만원, 김은숙 2만원, 김지혜 2만원, 김지희 2만원, 남명자 6만원, 노수산 3만원, 신선주 3만원,

유정은 3만원, 이현경 6만원, 조선영 2만원, 최루미 3만원

(자료회원)

서재림, 이경순, 황옥경, 부산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정영숙

(후원해주셨습니다)

이정미 5만원, 김숙자 10만원, 김명선 50만원, 이순 2만원, 고영미 5만원, 김종원 3만원, 윤

선영 10만원, 이선미 10만원, 백선희 2만원, 오영숙 2만원, 권성춘 4만원, 김경인 2만원, 김동현 3만원, 김상우 1만원, 김은주 1만원, 김정윤 2만원, 김종원 3만원, 김진명 1만5천원, 김현순 2만원, 류호선 10만원, 박차리 1만원, 신주영 1만원, 염소현 2만원, 원명순 2만원, 이주연 1만원, 이지수 2만원, 임태형 3만원, 장성일 2만원, 장혜주 2만원, 하운하 1

만원, 한만우 2만원

편집부에서

올 봄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느낌입니다.

예년보다 더웠던 3월과 유난히 비가 많았던 4월, 그리고 다시 한여름 같은 5월...

거기에 지하철 참사, 이라크 전쟁, 사스...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혼란스럽고 처참한 봄입니다.

보육계에도 이번 봄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봄이었지요.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둘러싸고 입장의 대립도 있었고, 무척이나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지라 여러 의견과 우려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누가 보육이란 단어에 어울리는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육을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는가 하는 것이겠죠.

복지부든 여성부든 보육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행정당국의 성숙한 자세를 기다립니다.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시면.....

- 매월 1만원(연회비 12만원)+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준회원이 되시면.....

- 연 6만원의 회비+ 지부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면.....

- 월 5,000원 이상의 후원을 하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 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